

예배의 공동체성에 대한 연구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서

드루대학교 신학교에 제출된

전문적 논문임.

지도교수:

조병호 철학박사

김영래 철학박사

레너드 스윗 철학박사

최현구

드루대학교

매디슨, 뉴저지

2025년 5월

Copyright © 2025 Hyunkoo Choi

All rights reserved.

ABSTRACT

A STUDY OF THE COMMUNALITY OF WORSHIP

Hyunkoo Choi

Dongtan Zion Methodist Church, Hwaseong

This project paper describes and diagnoses how God explains worship in the Bible and how worship has been viewed and defined over time, from the early church to the present day, based on the concept of "communality." Through this diagnosis, we derive what right worship is and provide direction for right communality for the restoration of worship in the future. The COVID-19 pandemic has especially shaken the most important characteristic of worship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e communality of worship. The impact on worship broke a church. Many churches have been trying to find ways to survive during the Pandemic, and they have been trying to find a new direction for worship by making various attempts at worship, which is the life and purpose of the church. Unfortunately, the wrong direction soon drove people away from the church, and their footsteps never returned to the church. The church did not know the right direction for worship. This is because it overlooks the communality that is at the heart of church and worship. The right direction for worship is to realize the essence of worship. Many churches have tried to find a new direction for worship, but because they didn't recognize the essence of communality, their worship suffered and members left the church.

Worship damage and changes cause our spiritual damage and changes. Wrong changes in worship bring about wrong changes in our lives. Therefore, the church needs the right approach to worship. Thus, this paper will diagnose current worship by drawing lessons from the Bible about proper worship and lessons from past worship. It will provide direction for future worship communality. The overarching goal of this thesis is to see the church revitalized by the integration of biblical, past, and present lessons on worship so that future worship communality is restored. The church needs to be faster than the world, so it is important to wisely apply biblical, past, and present lessons that may seem trite and old. It is my hope that this paper will spark a revival of worship and a revitalization of the spirit of the saints.

국문초록

예배의 공동체성에 대한 연구

최현구

동탄시온교회, 화성

본 논문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예배를 어떻게 설명하시고 과거의 초대교회 때부터 시간 흐름에 따라 현재에 이르러 지금의 예배는 어떻게 여겨지고 정립되었는지 “공동체성”을 기준으로 설명 및 진단을 한다. 이 진단을 통해 올바른 예배란 무엇인지를 도출해내고 미래 예배의 회복을 위한 올바른 공동체성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특히나 코비드 19로 인해 한국과 미국은 예배의 가장 큰 특성인 모임의 공동체성이 흔들렸다. 이는 곧 예배의 전면적인 타격을 의미한다. 예배의 타격은 곧 교회의 생존 여부를 결정지었다. 교회들은 어떻게든지 생존의 방법을 찾아내려 노력했다. 그리고 교회들은 교회의 생명과 목적인 예배에 대한 다양한 시도를 하며 새로운 방향을 찾으려 부단히 애를 썼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잘못된 방향설정은 곧 성도들을 교회로부터 떠나게 만들었고 그들의 발걸음은 다시 교회로 되돌아오지 않았다. 교회는 올바른 예배의 방향을 알지 못했다. 왜냐하면, 교회와 예배의 핵심인 공동체성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예배의 올바른 방향은 예배의 본질을 깨닫는 것이다. 많은 교회들이 예배의 새로운 방향을 찾는데 노력했지만 예배의 본질인 공동체성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배에 큰 타격을 받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

예배의 타격과 변화는 우리의 영적인 타격과 변화를 초래한다. 예배의 잘못된 변화는 우리의 잘못된 변화를 불러일으킨다. 따라서 교회는 예배에 대해 올바른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올바른 예배에 대한 교훈과 과거의 예배에서 교훈을 얻어 현재 예배를 진단한다.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에 성경과 과거, 그리고 현재 예배를 통한 교훈을 적용하여 미래 예배 공동체성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배에 대한 성경과 과거, 현재의 교훈이 급변하는 세상에 잘 융합되어 앞으로의 예배 공동체가 온전하게 회복됨으로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다. 교회는 세상의 변화보다 빨라야 한다. 따라서 진부할 수 있는 성경과 과거, 현재의 교훈을 지혜롭게 잘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이 앞으로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성도들의 영이 살아나고 부흥하는데 작은 불씨가 되기를 기대한다.

목차

감사의 글	ix
I. 서론	1
A. 연구의 목적	1
B. 연구 방법	4
II. 현재의 예배 진단	6
A.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받지 않으시는 예배	6
B. 대면 예배 논쟁	9
C. 예외의 상황	16
III. 예배와 공동체성의 연관성	24
A. 하나님은 예배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24
B. 예배에 나타난 공동체성(기도, 설교, 찬송, 성찬, 세례)	32
C. 제사법에 나타난 예배의 공동체성(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64
D. 초대교회 예배에 나타난 공동체성	75
IV. 예배의 공동체성 회복이 일어난 역사	82
A. 예배의 회복을 위한 종교개혁	82
B. 예배회복운동	88
V. 미래 예배 공동체성에 대한 방향	98
A. 변경예배를 통한 온라인 예배의 활용과 공동체성 회복	98
B. 코이노니아적 친교의 회복	109

C. 예배공동체 회복의 실제적인 사례.....	111
VI. 결론	114
참고문헌	126

감사의 글

본 논문이 결실을 맺기까지 도우시고 함께 하시며 은혜를 주신 해야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펼쳐가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합니다. 또한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깊이 있는 지도를 해주신 교수님들과 옆에서 기도와 헌신으로 함께 해준 아내 하예진 사모에게 감사하고 늘 아빠를 응원해주는 사랑하는 아들 최정우, 최시우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매일같이 기도와 조언, 격려로 힘을 주시는 양가 부모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논문이 결실을 맺기까지 기도로 함께 해주신 많은 동역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과 미국을 넘어 모든 교회의 온전한 예배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부족한 종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를 힘입어 최선을 다해 쓰임받는 목회의 여정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5년 5월

최 현 구

제 I 장

서 론

A. 연구의 목적

산모의 태중에서 심장이 멎는 것을 유산이라고 한다. 그것이 내 인생의 첫 시작이었다. 죽은 생명을 품고 있는 것은 산모에게 대단히 위험하다. 그러나 죽은 생명을 품고 있는 나의 부모님에게는 이상하리만큼 담대함이 생겨났다. 이것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한 부모님은 작정 기도를 하며 서원하셨다. “이 아이를 살려주시면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잘 키워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 받게 하겠습니다.” 마치 사무엘을 위한 어머니 한나의 기도와 같았다. 부모님의 작정 기도와 서원 기도 이후, 죽었던 내 심장은 다시 뛰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부모님의 소원을 이루시며 나를 살리셨다. 이제 나는 부모님의 소원을 넘어 하나님의 소원으로 살아야 하는 엄청난 축복 인생이 되었다. 나를 어머니의 태에서 꺼내셨던 담당 산부인과 의사는 살아난 것도 기적이지만 평생 장애를 갖고 살 것이라 확신하였다. 그러나 장애는 커녕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건강한 시절을 보냈고 지금도 그러하다. 물론, 건강의 여러 고비들이 있었지만 그 고비들은 많은 이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는 영광된 일로 변하였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일을 이루어가신다. 그것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방법,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계획을 갖고 움직이신다. 사막에는 수많은 모래들이 있다. 우리는 그 사막의 모래를 아무리

가득 주막에 채워 넣어도 손가락 틈 사이로 빠져나간다. 그리고 남아있는 손바닥 위 작은 한 줌의 모래,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들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사막의 모든 모래알보다 많으시며 제한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기도는 예배이다. 예배에는 여러 구성 요소가 있지만 그중에 기도는 예배의 중심을 이룬다. 내가 어머니의 태중에서 심장이 멈추었을 때, 부모님이 드린 예배(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해주셨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며 나를 살리셨다. 많은 사람들은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단방향성 행위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예배를 통해 우리의 일을 해주시며 우리를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교회의 예배를 멈추게 했다. 그리고 많은 언론 기관은 일제히 교회가 왜 코비드19라는 팬데믹 시기에 무너지고 있는지 조명하였다. 팬데믹 위기 속에 교회 후퇴 이유는 교회들이 예배의 기초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 예배의 기초는 모이는 것에 대한 교회의 특징을 말한다. 팬데믹 시대에 예배의 특징인 “모임”을 타협하여 예배를 멈추는 행위로 예배의 특징이 사라졌고 결국 예배가 무너졌다. 이것으로부터 교회의 정체성 전반이 흔들렸다.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예배 공동체의 모임이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고 그들이 함께 모인 곳이 교회이다. 교회에서는 서로 함께 예배를 드린다. 함께 드리는 예배가 사라지니 교회의 존재 이유 전반이 흔들렸다. 그러나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들여다보면 예배 속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있다. 내가 예배를 통해 영이 살아 숨을 쉬게 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 우리를 위해 무한하신 방법으로 일해주신다. 성경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각 성도들은 몸을 이룬다고 했다. 모두가 함께 모여 아름다운

공동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회 공동체의 예배가 멈추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교회가, 우리가 스스로 제한했다. 이를 통해 많은 교회들이 멈추게 되었다.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하면서 예배도 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그러나 예배는 변할 수 없다. 예배의 의미를 흔들고 예배의 기초를 흔들며 시대가 변했으니 예배도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를 변질시킬 수 있다. 시대가 변하면서 예배를 위한, 그리고 예배의 부흥을 위한 수단과 도구는 변해야 한다. 그러나 예배의 의미를 훼손하는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예배의 진정한 변화라고 하면서 예배를 위한 보조수단이 예배 자체가 되어버리는 것은 올바른 변화가 아니다.

역사적으로 종교개혁가들의 개혁의 초점은 ‘예배’에 있었다. 잘못된 예배, 변질된 예배를 올바른 예배로 변화, 회복시키는 것이 개혁의 초점이었다. 예배는 교회이고, 교회는 곧 예배 공동체이다. 예배를 개혁한다는 것은 교회가 변화한다는 것이고 교회의 변화는 예배의 변화이다. 중세시대 로마카톨릭 교회의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보다 성직자의 권한이 더 컸다. 성도들은 성직자가 예배 중에 행하는 여러 성례전적인 모습을 관람객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예배였다. 즉, 예배는 그저 성직자가 보여주는 연극에 불과했다. 성도들은 예배를 통해 변화될 수 없었고 예배에 참여할 수가 없었기에 예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결여되었다. 그래서 잘못된 예배를 바로잡기 위해 세계 도처에서 예배개혁을 위한 종교개혁가들이 등장했다. 이를 통해 현재 개신교는 예배의 구성 요소를 기도, 설교, 찬송, 성찬, 세례 등으로 회복하여 지키게 되었다. 이를 통해 성도들은 더 이상 예배의 관객이 아닌 참여자가 되어 예배를 이해하고 예배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B. 연구 방법

본 논문은 예배에 공동체성이 왜 중요한지, 예배 본연의 의미를 다각도로 고찰하여 결국 교회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연구를 한다.

첫째로 예배와 공동체성과의 연관성이다. 이를 위해 예배의 정의와 의미를 분석하여 교회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정립한다. 이해의 정립을 기반으로 ‘기도, 설교, 찬송, 성찬, 세례’라는 예배의 구성 요소에서 드러나는 공동체적인 특성을 분석한다. 그리고 구약시대의 예배였던 제사법에 나타나는 공동체적 의미와 신약의 초대교회 예배 모습에서의 공동체성을 연구한다.

둘째로 현재의 예배를 진단한다. 과연 오늘날 예배는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인지 팬데믹을 거치며 불거지는 예배의 논쟁을 통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으시는 예배에 대해 연구한다. 특히 온라인과 미디어 발달에 따른 현대교회의 대면 예배가 직면한 상황을 진단하며 온라인 특수성으로 인한 온라인 예배의 예외성을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통해 연구한다.

셋째로 예배의 공동체성 회복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연구한다. 종교개혁시대에 예배의 공동체성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찾아보고 종교개혁 이후에 예배회복운동과 슈페너의 경건운동을 통해 나타난 예배의 공동체성 회복에 대해 연구한다.

넷째로 미래 예배 공동체성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올바른 온라인 예배 활용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미국에서 등장했던 Frontier Worship(변경예배)의 교훈을 통해 미디어와 온라인의 방향성을 고찰하고 예배공동체 회복이 일어난 실제적인

사례를 종합하여 성도의 올바른 교제가 예배 공동체성 회복에 미치는 영향을 친교(Koinonia)를 통해 연구한다.

다섯째로 결론을 도출한다. 연구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예배의 ‘공동체성’을 되짚어 보고, 이를 통해 미래 예배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지금의 교회가 직면해 있는 현장예배와 대면예배의 실종, 교회 공동체 붕괴, 이로 인한 교회 해체 등의 문제를 진단하여 내일의 교회가 가져야 할 올바른 예배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나’와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 ‘이웃’의 관계, 그리고 ‘나’와 ‘이웃’의 관계가 쌍방 간 이루어져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게 된다. 현대의 교회가 그러한 공동체성 회복을 통해 예배의 본질을 되찾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예배 회복, 교회 회복, 그리고 교회를 이루는 성도를 살리시는 일을 경험하고 기대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 II 장

현재의 예배 진단

A.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받지 않으시는 예배

성경은 하나님이 ‘영’ 이시기에 예배자인 우리는 영(성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¹ 거꾸로 뒤집어보면,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박사학위를 가진 점잖은 사람들이 모여 엄숙히 예배드린다 해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수도, 또는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 아무리 신나는 찬양과 모임이 활발한 교회일지라도 그 교회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인지, 또는 받지 않으실 예배인지는 그들이 진리와 진정한 마음으로 성령님이 함께 하실 예배를 드리는지에 달려 있다.

예배의 본질은 “나”와 “하나님”의 상호관계, “나”와 “성도들”의 상호관계, 그리고 “성도들”과 “하나님”의 상호관계이다. 이 관계는 쌍방의 교제이다. 그래서 모든 상호관계는 아래의 그림처럼 연결된다.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 현장에는 그 예배를 위해 성도들이 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² 성도들은 하나님께 찬송, 기도, 찬양, 청소 등 눈에 보이는 일과 보이지

¹ A.W.토저, 『이것이 예배이다』 이용복 역 (서울: 규장, 2006), 101.

² 이성호, 『예배를 알면 교회가 보인다』 (서울: 좋은씨앗, 2020), 23.

않는 수많은 여러 가지 손길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한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 성도들에게 생수의 강물 같은 말씀을 하시며 예배를 통해 올려지는 찬송과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면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성도들의 일을 대신해 주시며 성도를 섬겨 주신다. 즉, 예배는 하나님과 나, 그리고 나와 성도들이 삼각구조를 이루어 직접적인 일들(섬김)을 이루는 것이다. 나는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는 상호교제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아래와 같은 그림을 만들게 되었다.

아래의 그림을 보면 하나님은 상단에 위치해 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며 변하지 않으시기에 위에 표시되어 있다. 삼각형 아래 위치한 ‘나’와 ‘너’는 믿음이 연약하여 상황에 따라 흔들릴 수 있다. 우리는 늘 변함없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닐 콜이 저술한 ‘파도를 타는 교회’에서는 이러한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 대하여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정체성에 의해 조정되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조정할 수는 없다.”³고 저술했다. 다시 한번 아래의 그림을 보자. 하나님이 상단에 위치해 있다. 예배에서 상호교제가 이루어지지만 예배는 성도가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것이 우선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단에 위치해 있다. 성도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다시 하나님은 받으신 그 예배를 통해 성도에게 은혜와 능력으로 나타나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대신해 주시는 예배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이다.

³ 닐 콜, 『파도를 타는 교회』 임재승 역 (서울: 도시사역연구소, 2020), 164.



하나님께서 성도의 예배를 받아주셔야 예배가 완성된다.⁴ 구약성경 말라기를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정확하게는 그들의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었다. 분명히 그들은 번제의 의미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예배의 ‘일’을 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상호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방신을 받아들이는 이중적인 태도와 타락한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실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도 마찬가지다. 가인은 자신을 사랑했고 아벨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였다. 가인은 땅의 농작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물을 드렸다. 둘은 각자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린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다. 이 둘은 각기 제물은 달랐지만 같은 시간에 같은 예배 섬김으로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한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만 받으실 수밖에 없으셨을까? 그

⁴ Ibid., 23.

차이는 예배드리는 성도의 자세인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 창세기 4장 4-5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때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함께 제물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신다. 제물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제물이 아무리 좋고 귀하더라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우선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다. 창세기 4장 4~5절은 이렇게 말한다. “(4)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 드릴 때, 그 예배가 완성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예배자의 귀한 마음과 자세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해주시는 상호교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점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급하게 변화하는 사회흐름 속에서 교회는 수많은 검증되지 않은 것들에 좋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되고 그럴 때마다 교회는 계속 위기를 겪게 될 것이다.⁵ 이러한 점을 분명히 하면 오늘날 불거지는 예배의 논쟁에 휩싸이지 않게 된다.

B. 대면 예배 논쟁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은 하교 시간이 지나도 아이들이 집에 돌아오지 않으면, 보통 친구 집에 놀러 갔거나, 학교 운동장에서 놀거나, 놀이터에 갔으리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 놀이의 장소가 초등학생 나이에는 특별히 구별되어 있기

⁵ 김두현, 『교회 케리그마』 (광주: 21C목회연구소, 2013), 4.

때문이다. 예수님에게도 어린 시절, 특별하게 구별된 장소가 있었다. 예수님은 12살 그 어린 시절부터 성전을 특별하게 구별하셨다. 누가복음 2장 49절⁶에서 예수님은 성전(예루살렘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 부르셨다. 신약학자인 데럴 보크(Darrell Bock)는 누가복음 2장 49절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인 ‘dei’ (necessary)를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내 아버지 집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이 단어에 중요성을 두어 번역하자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라는 의미를 지닌다.⁷ 예수님도 하나님의 성전의 특별함과 구별됨, 그리고 최우선순위에 대해 언급하셨다. 그러나 누구는 이렇게 생각한다. “꼭 성전(교회)에서만 하나님이 계시니까? 교회라는 건물에만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말은 틀린 의문이 아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 하시기에 언제 어디에나 계시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지만 특별하게 장소를 구별하시어 그 특별한 장소를 통해 당신의 거룩하심을 보이시고자 하셨다. 12살의 어린 예수님이 성인이 되어 공생애 기간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요한복음 2장 13~16절)⁸을 보았을 때를 생각해보면, 성전의 특별함, 성전의 최우선순위, 그리고 성전의 거룩함을 느낄 수 있다. 예수님이 성전을 사모하시는 이 마음을 두 눈으로 본 제자들은 요한복음 2장 17절에 이르러 이렇게 고백하며 깨달음을 얻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⁶ 누가복음 2:49.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⁷ 이동원,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서울: 두란노, 2008), 35.

⁸ 요한복음 2:13~16. (13)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14)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15)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엮으시고 (16)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기에 주의 전인 성전을 사모한다는 것은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를 사모한다는 것이다.⁹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성전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뜨거운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집인 성전보다 나의 집이 더 특별하기에 집에서 유튜브와 같은 미디어매체로 예배를 드리는 식은 믿음을 가졌는가?

위에 대한 질문이 바로 오늘날 불거지는 예배의 논쟁이다. 오늘날 불거지는 예배의 논쟁을 무엇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 바로, ‘대면예배의 필요성’이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한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대면예배의 불필요가 아니라 필요성을 말씀하는 구절이다. 꽤 많은 성도들은 이 말씀을 편의대로 해석하여 집에서나, 여행지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 식구 여행지에서 집에서 편하게 예배드리겠다고 편의롭게 해석을 하곤 한다. 이동원 목사는 그의 저서인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에서 신학자인 프레데릭 브룬너(Frederick Dale Bruner)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였다.

프레데릭 브룬너는 여기서 두세 사람은 신약 교회에서 성도의 공예배가 성립하는 최소 단위라고 지적한다.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공예배의 최소 단위를 장년 남자 10명이라고 전통적으로 생각해왔다. 그러나 예수님은 두세 사람의 거듭난 성도만 있어도 예배는 성립할 수 있다고 보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진정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할 목적으로 모인다면 주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할 것임을 선언하신 것이다. 그런데 브룬너 교수는 이 말씀이 미래형이 아닌 현재형으로 예수님이 거기에 임재할 것을 약속하셨다 말한다. 영어로 표현해보면 “I will be in their midst”가 아니라 “I am in their midst”라는 것이다. 몇 사람이 공교회에 모이든지 진지한 공예배가 드러지는 곳이라면 예수님은

⁹ 이동원,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 37.

이미 “I will be” 가 아닌, “I am” 으로 임재하신다.¹⁰

진지하고 거룩하게 드려지는 공예배가 중요한 포인트이다. 공예배는 가정기도나, 가정예배가 아닌 특별히 구별되어 드려지는 교회 공동체 예배이다. 일컬어 주일예배, 수요일예배를 말할 수 있겠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거하시는 성전에서 특별하게 구별되어 드리는 공예배를 거룩하게 드릴 때, 그 예배를 드리는 인원이 두 세사람 뿐이어도 하나님은 “지금” 임재하신다.

예배는 반드시 함께 모여 드려야 한다. 그러나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되면서 예배를 꼭 대면해서 드려야 하느냐는 의문이 많다. 이러한 의문은 Covid 19라는 코비드바이러스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있었던 이슈이다. 교회가 성도들에게 예배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가르치지 못했기에 이 이슈가 해결되지 못했다. 많은 성도들은 예배에 있어서 설교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답한다. 그렇기에 집에서 편안하게, 때로는 여행을 가서 편안하게 설교만 들을 수 있으면 예배 드리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내가 섬기는 교회보다 더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골라 듣게 되면서 모임의 공동체성의 의미가 사라져 가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예배는 꼭 함께 모여 드릴 필요가 없다고 여겨졌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봐야 한다. 온라인 예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슨 일들을 할 수 있는가? 온라인 예배에서 내가 다른 성도를 섬길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대면예배 만큼이나 온라인 예배에 내 마음가짐이 아벨처럼 귀할 수 있을까? 이러한 물음에 온라인 예배는 해답이 되지 않는다. 온라인 예배가 가져온 가장 큰 변화는 예배의 자세가 “아벨” 이 아닌 “가인” 으로 만드는 것이다. 예배가 관람으로 변했다. 예배로 모이는 기독교

¹⁰ Ibid., 38.

공동체는 모여야 한다. 모임이 없는 교회는 무너지게 된다. 실제로 한국도 미국도
 코비드바이러스를 겪으면서 모임이 해체되고 온라인 체제로 변경한 수많은 교회들이
 아무도 모르게 사라졌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존재 목적과 이유인
 “예배의 모임”에 더 최선을 다한 교회들은 이 시기를 통해 부흥했음을 알 수
 있다. 2004년 미국 연합감리교회(UMC)는 총회에서 온라인 예배를 통해 공동체가
 함께 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공동체 자리에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표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 실질적으로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고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자리를 벗어났다. 교회로 부름받아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한 몸으로서
 공동체가 함께함을 잃어버리고 다 찢겼기 때문이다. 몸은 늘 붙어있어야 한다.
 손가락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그 온몸이 고통스럽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몸을
 분리시켰으니 그 결과는 눈에 보듯 뻔했다. 많은 예배 공동체가 해체되었고 교회가
 무너졌다.

대면예배처럼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제한적인
 온라인 예배, 다른 성도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온라인 예배, 대면예배처럼
 마음과 몸의 준비가 어려운 온라인 예배를 통해 성도는 감히 “하나님, 온라인
 예배를 통해 일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을까? 예배의 본질이 앞선
 삼각형의 그림처럼 상호관계의 교제가 일어나야 하는데 온라인에서 그러한
 상호교제가 일어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하다. 예배생활의
 핵심인 공동체성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2022년 1월, 워싱턴DC에서의 3년간의 공부를 마치고 뉴욕주로 이사를
 갔다. 뉴욕주에 위치한 한인교회 부목사로 섬기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때는 미국이
 코로나에 점차 무감각해져 가기 시작할 때였다. 나는 교회에 와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 예배가 완전히 무너졌었기 때문이다. 특히 아이들 중에서 온라인 예배가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교회에 오기 좋아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교회에 오기 싫어하고 왜 교회를 나가야 하는지 의문을 갖기까지 했으며 점차 온라인 예배조차 드리기 싫어하는 아이들이 많았다. 이러한 현상은 부모님에게도 전파되어 부모님 역시 교회에서 멀어지게 되었다. 나는 함께 모이는 공동체 예배로의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진단을 내리고 성도들을 설득하고 부탁하며 아이들의 예배를 점차 회복해 나가기 시작했다. 어떻게든 성전에 모여 성전에서 흐르는 생명의 강물, 말씀을 통해 다시 살아나는 회복의 역사를 모두 함께 누리고 싶은 마음이 컸다. 하지만 오랜 기간 온라인 예배를 드려왔던 아이들의 예배상태가 어떠했겠는가? 교회를 난생 처음 나오는 아이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 예배가 드리지는 시간 동안, 예배 공간은 그저 키즈카페와 같은 놀이공간이었다. 그러나 공동체가 예배로 하나 되어가면서 아이들을 비롯해 많은 성도들이 아름다운 예배공동체로 회복되었음을 보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지체이다. 그렇기에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만나, 교회학교 교사로, 찬양으로, 헌금 위원으로, 성가대로, 찬양대원으로 그렇게 각자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각자마다 맡기신 일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예배가 완성되는 것이다. 예배를 통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 나를 살리신다. 예배자로서 모든 이들이 각자 예배에서 맡은 분량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이 하나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 하나님께 맡김받은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아름다운 화음의 찬양이 되어 아름다운 하모니로 하나님께 올려질 것이다. 우리 각자의 역할이 하나로 합쳐지면, 그것이 하나님께 아름답고 조화로운 화음이 된다. 기도자는 기도로, 반주자는 반주로, 교회학교 교사는 교사로, 성가대는 성가대로 각자의 역할을 다하면 그 예배를 통해서 건강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신다. 그렇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라는 공동체를 살리신다.

온라인 예배 가운데 관람의 마음으로 예배의 구성요소 중 기도와 찬송, 그리고 설교 말씀 듣기는 그럭저럭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예배의 나머지 구성요소이자 예배의 정신과 의미가 담긴 성찬과 세례를 꺼내 드는 순간 예배는 더 이상 관람이 될 수가 없음을 더 명확히 알 수 있다. 온라인 예배에서 성도는 성찬과 세례에 참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에 담긴 공동체성의 의미를 각자의 삶에 적용할 수 없다. 개인의 영역을 강조하는 온라인과 삼각형을 이루는 상호교제 의미가 담긴 성찬과 세례는 온라인과 하나가 될 수 없다. 특히 성찬의 경우,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단지 떡과 포도주만 먹는 의식을 넘어서 그 의식에 모두 함께 참여함을 통해 내가 주님과 상호교제를 이루고 지금 옆에서 함께 떡을 떼는 이들과 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성찬은 예배의 본질인 ‘교제’, 즉 나와 하나님의 교제, 그리고 성도간의 교제를 가장 분명하게 전하고 있다.¹¹ 교회에서의 교제는 세상에서의 교제와는 차원이 다르다. 예배 공동체로서의 교제는 거룩한 모임이다. 『예배를 알면 교회가 보인다』는 책에서 저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성도의 교제는 단순히 친교 이상을 의미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성령의 중요한 사역 중 하나로 우리 신앙의 대상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라틴어로 코뮌리오 상크토룸(communio sanctorum)이라고 하는데, 이중적 번역이 가능합니다. 성도의 교제로 번역할 수 있고 ‘거룩한 것들에 참여함’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성도의 교제는 거룩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한 것들인 성례(세례와 성찬)를 통해 거룩하신

¹¹ 이성호, 『예배를 알면 교회가 보인다』, 140.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 거룩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¹²

성도의 교제가 세상의 교제와 달리 거룩한 이유는 우리가 예배 공동체로서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온 성도가 서로 하나가 되기 때문이다. 성도가 세상과 달리 거룩한 교제를 강력하게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에서 일어나는 성찬이다. 예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다. 그러나 성도의 교제, 주님과과의 교제가 일어나지 않는 예배는 힘이 없다. 이것이 온라인 예배의 분명한 한계이다. 예배의 결론은 거룩한 교제의 회복이다.

C. 예외의 상황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나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통해 예외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어떤 이들이 이 말씀을 잘못 인용하여 예수님께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그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셨으니 교회에 나오지 않고 집 또는 여행지에서 편하게 예배드려도 괜찮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말씀을 왜곡하여 이용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4장절은 공동체적 예배의 필수성을 배제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하는 말씀이다. 아벨의 제사처럼 우리의 마음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말씀이다. 동시에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는지 당시의 시대적, 문화적, 사회적 요인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다. 열왕기상 16장에 따르면 북이스라엘왕

¹² Ibid., 140.

오프리가 세펠로부터 땅을 사서 그 땅에 성을 건축했고 수도로 삼았다는 기록이 있다. 북이스라엘이 앗수르에 의해 멸망하면서 앗수르는 이방인들을 사마리아로 이주시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족적/종교적 정체성을 없애려 했다. 원래 사마리아 지역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왕 때부터 우상숭배가 팽배했으나, 이제는 다른 이방인들의 우상까지 더해졌다.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시대에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 호세아라는 대단한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의 신앙의 거룩과 회복, 우상숭배로부터의 회개를 촉구했으나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는 커져만 갔고 결국 멸망하게 되었다. 앗수르에 의해 멸망한 이후 우상숭배의 죄가 만연했던 사마리아에 이방인들을 통한 수많은 우상들이 더해지면서 사마리아는 우상과 하나님을 섬기는 혼합주의자들이 만연해지게 되었다. 이것이 남유다 사람들이 한 때는 한 민족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배척하게 된 이유이다. 남유다 입장에서 변질된 사마리아인들의 신앙은 분명히 거짓이었다. 그들이 보기에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과 우상신을 함께 섬기던 민족이었다. 사마리아인들의 신앙이 혼합정책으로 점차 변질되어 갔기 때문이다. 에스라 9장에 따르면, 남유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거룩한 혈통이고 사마리아인들은 우상을 받아들인 혼혈민족이기에 차별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 사마리아인들의 참여요청을 완강히 거절했다. 남유다 입장에서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그들과 성전을 함께 지을 수는 없는 일이었고, 혹시나 남유다 까지 우상숭배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일을 원천 차단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외면하고 차별하는 남유다에 분을 품고 살 수밖에 없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끼리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리심 산에 성전을 건축하여 오랜 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기도 했지만 자신들을 차별하는 유대인들에 의해 성전이 파괴되는 아픔을 겪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짐승처럼 여겼고, 사마리아라는 이름 자체를

부정적인 용어로 사용하였다. 때문에 자신의 자녀들이 사마리아인과 교제하는 것은 물론 결혼하는 것도 금지시켰으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제사에 참여하는 것에도 철저히 배제했다. 유대인들이 남유다에서 갈릴리로 갈 수 있는 최단거리는 3일 밤낮으로 사마리아를 거치는 방법밖에 없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얼마나 사마리아 사람들을 기피했으면, 사마리아의 그림자도 밟지 않기 위해 사마리아를 거치는 3일 밤낮의 최단 거리를 포기하고 엄청난 거리를 돌고 돌아서 갈릴리에 도달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통해 갈릴리로 가며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셨다. 예수님은 여인을 만나 잘못 변질된 신앙을 바로잡아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심으로 상처 많은 그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키셨다.

앞선 이해를 기반으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 알아보자. 그녀는 변질된 신앙으로 인해 차별받는 민족의 아픔을 지니고 살아야 하는 사마리아인임과 동시에 다른 사마리아 사람들보다 더 철저하게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여러 번의 결혼과 이혼을 경험했는데, 이는 그녀로 하여금 사회에서 부정한 여인으로 인식되게 하였고 이로 인해 같은 마을사람들조차 그녀에게 말을 걸기를 꺼려했다. 이 여인이 물 길러 나온 시간은 정오였다. 정오는 물 길러 오는 시간이 아니다. 당시 여인들은 아침과 저녁 시간에 물 길러 왔기 때문이다. 사마리아 여인이 정오에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물을 길러야만 했던 이유는 그 시간이 유일하게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녀를 향해 부정한 말로 비난을 하고 따돌렸기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또한 남편을 잃은 과부인 그녀가 할 수 있는 경제활동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배고픔과 빈곤 속에 살았고 또한 당시 여성은 종교적/사회적으로 활동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예배 공동체에 속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어려움이었다. 이런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녀를 만나러 오셨다. 그러나 마음의 상처가 많은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차갑게 대했다.

사마리아 여인은 왜 유대 땅에서 오신 이 분이 누구시기에 사마리아 땅을 밟으셨는지,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그것도 상처가 많은 나에게 이 분이 말을 거시는지 궁금했을 것이다. 예수님은 그녀와의 대화를 통해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보이셨고 여인은 모든 궁금증이 해결됨과 동시에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았던 예배자가 되었다. 마음의 상처가 회복된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여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마을로 뛰어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 소리 높여 전하였다.

여기서 나타나는 교훈은 예수님을 통해 사마리아가 초대교회 공동체의 선교 대상이 되었다는 점이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말씀하고자 하신 것은 그들의 상처입은 마음과 역사적 배경에 따른 변질된 신앙관 역시 복음으로 회복되어 “하나의 예배 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요한복음 4장 20~24절은 이렇게 말씀한다. “(20)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21)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2)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23)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던 사마리아 여인, 예배 공동체에 속하고 싶어도 속하지 못하던 상처 많은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게 “예수님,

사마리아인의 조상들은 지금은 무너진 그리심산 위에서 예배드렸습니다” 라고 장소를 지칭하여 말했다. 예수님은 그녀의 말 속에 있는 깊은 상처를 발견하시곤 말씀하셨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예배할 때가 있으리라.” 예수님은 예배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고 예배처소에 나가기로 감히 꿈도 꾸지 못하는 그녀를 위로하시며 장소보다 먼저 되어야 할 것은 온전한 예배자로서의 회복임을 말씀하신 것이다. 온전한 예배자로서의 자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자와 같이 교회에서 예배공동체에 속하여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이런 예외적인 상황에 처한 예배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괜찮다. 예배자로서 온전한 예배자의 자세,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다면 지금 네가 있는 곳에서 예배드려도 괜찮다.” 말씀하신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몸이 아픈 환자나 마음이 아픈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 교회 공동체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이 머지않아 예배 공동체의 훌륭한 일원이 될 것임을 아셨다. 실제로 그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후 물둥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가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공동체를 이루게 하였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께 간청하여 이들을 더 머무시며 말씀을 전하도록 하였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들의 잘못된 혼합주의 신앙을 보게 되고 이제는 온전한 신앙으로 회복되었다. 요한복음 4장 41절¹³에는 그렇게 더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회복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말씀한다. 42절에는 놀랍게도 이전에 여인을 비방하며 말

¹³ 요한복음 4:41.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결기를 꺼리던 같은 마을 사람들이 지금은 여자에게 말을 건네는 장면이 나온다.

“처음에는 당신의 말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했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깨닫습니다.”

이것은 아래의 그림처럼 예배 공동체의 아름다운 삼각형 관계, 나와 주님, 나와 성도, 성도와 하나님의 상호교제가 일어나는 온전한 공동체가 완성되는 순간이다.



예수님이 그녀를 직접 만나 마음을 치료하시며 예배자로 회복하셨다는 것은 그녀가 예배를 통해 주님과 상호교제하는 관계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녀의 회복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회복으로 이어졌고 온전하고도 완전한 예배 공동체를 이루게 하였다.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면 예배 공동체가 살아난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의 본질을 깨닫자마자 마을로 달려가 평소에는 만나면 두려워서 피하기 바빴던 그 사람들을 향해, 평소에는 두려워하던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을 선포했다. 그 여인을 통해 마을에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었고 예배공동체가

회복되었다. 한 명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 변화하면, 즉 예배를 통해 변화되면 공동체가 회복된다. 이것은 예배의 기적이고 성경의 진리이다. 성경은 말씀이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빛이라 말씀한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 살아있는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기에, ‘빛’이신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된 것이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겠는가? 성경은 이러한 삶이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이라고 말씀한다. 이사야 60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빛과 영광은 같이 있는 것이다. 성경이 말씀하는 영광은 ‘빛을 반사한다는 의미’를 지녔다.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 받은 빛을 그대로 반사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이다. 이러한 삶이 주님께 영광된 삶이다. 요한복음 17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한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나님 영광이 나를 통해 주위 사람들에게 비추지는 삶을 살라는 것이 우리를 위한 주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다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가 예수님(말씀, 빛)을 마음으로 모시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며 그것이 주님께 영광되는 삶이다. 에스겔 43장 2절 말씀¹⁴도 영광이 있는 곳에 빛이 있다고 말씀한다. 빛을 비추이는 삶은 영광된 삶이고 영광이 있는 곳에 빛이 있다. 아마도 이 시대에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많은 이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예배자로 회복되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면, 건강한 예배 공동체가 날로 부흥하여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역사가 전 세계에 널리 나타날 것이다. 몸이 아프고

¹⁴ 에스겔 43:2.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 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마음이 아파서, 때로는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대면하여 함께 모이는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면, 이 순간에는 있는 자리에서 영과 진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머지않아 사마리아 여인처럼 온전히 회복되어 예배 공동체에 속할 뿐만 아니라 예배 공동체의 회복을 이끄는 기름부음받은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제 III 장

예배와 공동체성의 연관성

A. 하나님은 예배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¹⁵ 그래서 사람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것을 좋아한다. 이 시대의 선지자로 불렸던 A.W.토저는 아기가 태어날 때 아버지는 아기가 자기를 닮았는지 유심히 살피듯이 우리는 나를 닮은 것들을 좋아한다고 표현했다.¹⁶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셨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크게 기뻐하신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민해봐야 한다. 사람은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어야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어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사람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영광되게 한다고 말씀한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빛은 늘 같이 나온다.¹⁷ 찬송가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의 가사도 마찬가지이다. 나를

¹⁵ 창세기 1:26-27. (26)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¹⁶ 토저, 『이것이 예배이다』, 42.

¹⁷ 이사야 60:1.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통해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곧 이웃과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삶이다.¹⁸ 이러한 삶은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좋은 말을 하며 또 세상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그것보다 앞선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예배’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서 우리를 통해 반영되는 하나님을 보시고 크게 기뻐하신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의 은혜를 힘입어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좋은 말을 하며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바쁘게 일하고 힘들게 돈 벌며 어렵게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웃까지 돌볼 여유가 있겠느냐고 호소한다. 그러나 사람 된 우리의 최초 창조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이 말은,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사람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사람의 창조 목적대로 쓰임받고 그렇게 사는 것이다. 글씨 쓰는 펜을 생각해보자. 펜의 존재목적은 글씨가 잘 써지는 것이다. 만약 글씨가 잘 써지지 않는다면 주인은 그 펜 때문에 꽤나 심기가 불편할 것이다. 충분한 잉크의 양으로 선명하게 글씨를 쓰는 펜은 주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다. 주인은 그런 펜을 아끼고 가장 먼저 사용한다.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사람이 사람의 최우선적인 창조목적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신다면, 다른 복잡한 걱정거리들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일들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시고 먼저 쓰시겠다 하면 이미 다 해결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간 놓쳤던 예배에 대해 고민해보자.

먼저, 하나님은 예배의 공동체성을 강조하신다. 그래서 예배를 말할 때, ‘나’ 보다 ‘우리’ 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다. 예배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¹⁸ 마태복음 5:16.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해주시는 복합적이고 이중적인 섬김이다. 즉, 예배는 하나님과 예배자의 연합된 공동체성을 말한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지만, 사실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 우리가 무엇인가 기대치와 예상치를 갖고 일을 할 때, 우리 스스로를 의지하여 이룬다면 그것은 그저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되지만 우리가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일을 대신해주신다. 이것은 우리의 힘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사람에게에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분이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그것의 가장 기초가 예배이다.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세와 그런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의 개혁이 일어난 대표적인 장소는 독일이다. 독일의 언어로 예배는 고테스딘스트(Gottesdienst)이다. Gott이라는 하나님과 Dienst라는 섬김으로 이루어졌다. 이 단어는 정말 흥미롭다. 이 단어의 의미에는 주어가 없기 때문에 이중적 섬김을 내포한다. 첫째,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둘째로, 동시에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섬겨 주신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⁹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의 일을 대신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¹⁹ 이성호, 『예배를 알면 교회가 보인다』, 21.

예배이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르다. 다른 종교는 우리가 신을 만나기 위해 저 높은 곳에 올라가야만 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신은 높은 산 위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 산 위에 있지 않고 산 아래로 내려오셨다. 하나님께서는 산 아래 있는 우리를 만나기 위해 직접 내려오셨고 동시에 우리를 위해 대신하여 죽으셨다. 하나님은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섬기실 계획, 우리의 일을 대신해주실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으시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바로 우리를 위한, 우리를 향한 계획이다.

예배의 헬라어 원어는 *Leitourgiva* 레이투르기아이다. 라오스라는 ‘백성’과 에르곤이라는 ‘일’의 합성어이다. 그러므로 예배의 원어를 해석하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이 예배가 되고, 동시에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일로 복합적인 해석이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해주시는 이중적인 섬김이다.²⁰ 예배를 원어적이고 언어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상호관계성을 나타낸다.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다. 예배가 일어나는 곳이 어디인가? 교회이다. 교회는 원어로 에클레시아이다. 이는 ‘세상 밖으로 부름받은 이들의 모임’이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의 모임을 예배 공동체라 말한다. 이 예배 공동체는 다른 말로 교회가 된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한 명, 그리고 또 한 명 모이는 공동체의 모임이 교회이다.

친교 및 교제를 말하는 코이노니아(Koinonia)는 사람이 서로 함께하는 교제를

²⁰ Ibid., 22.

말하며 공동체의 연합, 예배에 참여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우리가
 코이노니아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 다시 우리를
 섬겨주시기 때문에 결국 코이노니아는 하나님과 나, 나와 사람들과의 이중적인
 ‘연합’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것은 성령에 의해 가능해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배를 완성해 나갈 수 있다. 교회는 곧 예배 공동체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가 코이노니아를 잃는다면 그것은 건강한 예배,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다. 교회의 ‘모임’의 의미가 없어져가는 이 시대에 코이노니아는
 우리에게 교회의 본질을 일깨워 주는 중요한 단어가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회복되고 성도간의 교제의 회복을 위해 부르셨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한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 교제는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이루는 기초가 된다. 에베소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한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결국,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이루어 예배 공동체가 된
 모든 사람들과의 교제를 가능하게 한다. 에베소서 4장 16절²¹의 말씀처럼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고 한다. 코이노니아는 본질적으로 아가페(Agape)와 연관이
 있다. 아가페는 사랑이다. 우리가 에클레시아로서 예배 공동체를 이루어 코이노니아

²¹ 에베소서 4:16.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적인 교회를 이룰 때, 우리는 예배를 통해 교회 안에서 아가페를 실천해야 한다. 시편 133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한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전도서 4장 9~12절은 이렇게 말씀한다. “(9)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10)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무를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11)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12)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혼자가 아닌 서로 연합하여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하는 것을 강조하신다. 아담에게도 하와를 붙여 주셨다. 사람을 의미하는 한자를 보자. 인간의 ‘인’은 사람인 人으로, 사람이 서로 기대어 있는 모습이다. 또한, 인간의 ‘간’은 사이간 間으로, 인간은 서로 기대는 존재이며 사람 사이 사이에 내가 존재하여 혼자서는 살 수 없는 공동체적인 존재임을 세상의 언어도 알고 있다.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코이노니아를 말씀하셨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중요하게 말씀하셨듯이 성경에서는 공동체적인 연합의 관계에 대한 많은 언급이 있다.

신명기 12장에서 이스라엘은 국가로서 새로운 시작을 한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시기이다. 그때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이런 말을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거짓 신, 우상을 믿는 저들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들과는 확연히 다른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들이 우상을 섬기는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가 함께 모여 기쁨의 예배를 드릴 예배처소를 주실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즐겁게 예배를 드립시다!”²²

구약에서부터 예배의 본질적인 성격은 공동체적이었다.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참여하는 축제였다. 만약, “오늘 부부싸움했으니 나는 내일 교회 가지 않을거야”, “어제 회사에서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았으니 오늘은 그냥 유튜브로 온라인 예배 볼게” 라며 예배가 더 이상 공동체의 예배가 아닌 자신의 기분에 따라 선택 가능해지는 개인적인 예배, 그리고 드러지는 예배가 아닌 ‘보는’ 예배로의 변질된 개념을 모세가 들었다면 아마 무척이나 놀라고 화내지 않았을까. 그러한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겠다는 선언이고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싶다는 의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된 때를 보면 늘 공동체적인 예배가 있었다. 그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늘 공동체적인 예배를 회복시키셨다. 요엘 2장 14~18절은 이렇게 말씀한다.

“(14)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15)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16)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17) 여호와를 섬기는

²² 신명기 12:1~8. (1) 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2)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3)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 곳에서 멸하라 (4)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이처럼 행하지 말고 (5)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6)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7)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8)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전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18) 그 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예배는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의 상호교제를 이루기 때문에 함께 더불어 연합하여 드러지는 대면예배가 정말 중요하다. 우리는 항상 은혜를 사모한다. 그래서 사모하는 자리에 열정적으로 참여한다. 우리가 갈급 할 때 가장 먼저 찾는 곳이 어디인가? 바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교회이다.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시기에 내가 찾은 곳이 어디였던가? 바로 예배의 자리였다. 나는 예배를 드리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길에 대한 정답을 얻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디로 가야 살 수 있는지 알고 있다. 내가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셨다. 이것이 예배 속에 나타나는 관계적인 요소이다. 하나님을 제외하고 어떠한 종교의 우상들도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나를 만나기 위해 직접 낮은 이곳에 내려오지 않는다. 또한, 하나님을 제외하고 다른 거짓된 우상들은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기만 하는 대상이 될 뿐, 그 예배를 통해 나를 위해 일해주지 않는다. 우리가 그분을 만나기 위해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우리 옆에 와 계신다. 우리가 예배드림을 통해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대신 해주신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지기에 가능하다. 예배는 사람이 주체가 되기도 하고 동시에 하나님도 주체가 되신다. 나는 2022년 11월 뉴욕주에서 가진수 예배학 박사를 만났다. 그는 나에게 자신의 저서를 주었는데, 그 책에 다음과 같이 적혀있었다.

미국 웨슬리안 대학교의 콘스탄스 M. 체리 교수는 그의 책 『예배 건축가(The Worship Architect)』를 통해 예배에서의 공동체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기독교 공적(Public)인 예배는 언제나 공동체적(Corporate) 예배이다. ‘Corporate’라는 영어 단어는 인간의 몸을 뜻하는 라틴어 코르푸스(Corpus)에서 유래했다. 그러므로 한 몸에 속해 있다가거나 한 몸이 된다는 것은 공동체를 경험하는 것이다. 교회는 바로 그런 몸이다. 그런 점에서 예배에서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공동체이다. 예배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에 예배에서의 찬양은 우리 공동체 모두의 노래가 되어야 하며, 함께 모여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공동체임을 기억해야 한다.²³

B. 예배에 나타난 공동체성 (기도, 설교, 찬송, 성찬, 세례)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 성도의 상호교제이다.²⁴ 예배는 크게 기도, 설교, 찬송, 성찬, 세례로 이루어진다. 기도와 설교, 찬송과 성찬, 그리고 세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성도들 간에 상호교제를 나누게 된다. 예배는 결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철저히 지키며 외로운 나만의 시간이 아님을 유념하며 예배를 이루는 각각의 주제 속에 담긴 공동체성을 논해보고자 한다.

1)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는 헬라어 원어로 ‘프로슈코마이’인데, 이것은 ‘목숨’, ‘숨’의 뜻을 갖는다.²⁵ 기도가 끊기면 우리의 숨이 끊기고 우리의 목숨이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²³ 가진수, 『모던워십』(부천: 워십리더, 2022), 183.

²⁴ 이성호, 『예배를 알면 교회가 보인다』, 23.

²⁵ 최승목, 『성막, 하나님을 꿈꾸다』(부천: 워십리더, 2022), 79.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는 우리 영적 생명의 호흡이다. 호흡은 작게 할 수도 있고 크게 할 수도 있다. 작은 호흡은 침묵기도(묵상기도)이고 큰 호흡은 부르짖는 통성기도이다. 우리는 침묵의 묵상기도로 하나님의 채우심의 은혜를 누리고, 부르짖는 통성기도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시원하게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우리의 기도는 채우심의 은혜와 내어드림의 은혜가 공존한다. 기도는 생명의 호흡이라 했다. 우리 영의 호흡이다. 그래서 언제나 기도하며 살아야 한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이 죽는다. 오 할레스비(O. Hallesby)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결과이다.”²⁶ 우리의 마음문을 매일 예수님이 먼저 두드리셨고 두드리시고 앞으로 두드리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은혜를 얻은 것이다. 마음 문을 여셨으니 우리는 마음, 즉 영의 호흡을 통해 주님과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

이러한 기도는 찬양과 감사, 사랑의 이슈로 시작된다. 그게 무슨 뜻인가? 기도의 시작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찬양과 감사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끝은 아니다. 우리 기도의 끝은 사랑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여기서 사랑은 행동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사랑은 그저 따뜻한 마음이나 좋은 느낌만이 아니다. 사랑은 마음에서 행위로 이어져야 한다. 사랑은 다음의 마태복음 25장 34~36절의 말씀과 같다. “(34) 그 때에 임금님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35)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²⁶ 이동원,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 21.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36)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우리가 이웃을 섬긴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내가 배고플 때 아껴둔 빵 하나를 이웃에게 내어주고 양보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곧 하나님께 하는 일이 된다. 우리가 이웃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은 기도에 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는 것을 깨닫고, 육신의 약함을 이겨낼 수 있다.

배고픈 사람을 먹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고, 죄수를 찾아가 위로를 하며 병자를 치료하는 모든 사랑의 행동들은 정말 위대하다. 그러나 기도없이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것이다. 금세 탈진에 이르고 지치게 된다. 예배 안에서 기도를 통해 사랑의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요 기도자이다. 그래서 건강한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는 나의 마음만 품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서로를 향한 섬김과 봉사의 충만함, 그리고 서로를 돌보는 삶의 충만함을 나누고 실천한다. 더 나아가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할 힘을 얻고 이웃들까지도 섬기는 놀라운 사랑을 실천한다. 우리는 예배를 이루는 기도를 통해 놀라운 사랑의 힘을 얻어 세상으로 나갈 힘을 얻는다.

성막을 구성하는 분향단은 기도의 의미가 있다.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닌 다른 향을 붙이다가 죽게 된다(레위기 10:1~2)²⁷. 내 뜻대로 하는 예배, 하나님이 듣지 못하실 기도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 수 있다. 기도는 나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는 것이다. 기도가

²⁷ 레위기 10:1~2. (1)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2)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하나님께 가지 않고 나에게로 가면 죽음에 이르는 것이다.

기도는 분향단의 향처럼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기 원하시며, 이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따라 온전히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기에 숨이 끊어지지 않도록 쉬지 말고 해야 할 것이다. 기도는 우리의 생명이다. 호흡이 끊기는 것, 즉 숨이 잠시라도 끊긴다면 우리는 죽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신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가능할까?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도의 시간을 정하라고 했다. 반복적으로 정해진 시간을 지켜 기도하는 것이 곧 우리의 기도의 호흡을 유지시키는 방법이다. 다윗은 하루에 세 번 기도했다. 시편 55편 17절은 이렇게 말씀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그리고 다윗은 하루의 첫 시작을 기도로 시작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시편 5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한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 88편 13절은 이렇게 말씀한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다니엘 역시 하루에 세 번 시간을 정해 기도했다. 감옥에 있을 때도 전에 늘 항상 하던 대로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한다. 다니엘 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한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기도의 습관은 우리의 영적 호흡을 트이게 한다. 습관을 좋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습관은 오늘과 다른 내일을 만드는 힘이 있기에 정말 중요하다. ‘어웨이크’의 저자 김유진 변호사는 기도의 습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기도를 습관화해야 하는데 이것이 어렵다는 것은 그만큼 기도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의미이다. 평소 필요할 때만 기도하다 보니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잊전에 모셨다는 것을 잊었다. 매 순간 기도드리는 것을 잊지 않으려 노력해야 한다.”²⁸

예수님도 기도의 습관을 가지셨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은 이렇게 말씀한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감람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습관에 따른 것이었다. 예수님도 습관대로 기도하셨는데, 우리도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이 당연히 필요하지 않겠는가? 습관대로 기도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²⁹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습관기도는 새벽기도이다. 습관적인 새벽기도라고 해서 무미건조하게 매일 반복되는 의미없는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대로 이해하는 습관적인 새벽기도란, 언제나 새벽마다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새벽기도를 목숨처럼 지키는 것을 말한다.³⁰ 새벽기도와 같이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나고 회복되는 영적 체험이 날마다 일어나야 한다. 그래서인지 성경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기적들은 하루의 첫 시간, 새벽에 일어났다. 출애굽 당시 홍해는 새벽에 갈라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벽에 요단강을 건넜다. 여리고 성도 새벽에 무너졌다. 십계명도 새벽에 받았다. 만나가 내린 시간도 새벽이었다. 다윗은 하나님이 새벽에 응답하시니 새벽에 기도한다고 말했다.³¹ 잠에서 깬 후, 하루 시간의 첫 열매, 우리 의식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²⁸ 김유진, 『어웨이크』 (서울: 북폴리오, 2022), 287.

²⁹ 데살로니가전서 5:17. 쉬지 말고 기도하라.

³⁰ 하근수, 『왜 새벽기도인가?』 (안산: 토브북스, 2020), 20.

³¹ 시편 5편 3절.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거룩한 습관이 필요하다.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습관적으로 새벽을 뜨겁게 붙잡았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윗이 그러하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여러 번 말씀하시기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 하셨다.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된다는 것은 하루의 첫 시작, 여명의 시간, 새벽이 시작되고 새로운 하루가 열렸음을 말한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하루의 첫 시간을 여는 분이다. 그러기에 사탄도 새벽에 악한 역사를 일으키기 좋아한다. 욥기 24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한다.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 같이 되며.” 이 말씀에서 밝을 때는 새벽으로 번역된다. 새벽은 사탄이 악한 역사를 일으키는 시간이다. 밤이 되고 새벽의 시간은 도둑의 시간이다. 사탄의 시험과 유혹이 많은 시간이 새벽이다. 그래서 술집들과 유흥이 새벽에 왕성하지 않는가?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그러하지 않았을까 여겨진다. 새벽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이자 사탄의 시험과 유혹의 시간이기도 하다.³²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 응답받는 특별한 새벽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겠는가? 새벽에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새벽에 기도하면 꿈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새벽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 새벽이 우리를 소중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잠언 8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한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기서 ‘간절히’는 히브리어 원어로 ‘גַּחַץ 샤하르’로서 ‘새벽에’라는 말이다. 즉,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새벽에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새벽은 하나님의 복을 담은 그릇이기에 새벽이라는 빈 그릇을 준비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그 안에 하나님의

³² 전병욱, 『새벽 예배자』(서울: 규장, 2006), 9.

복의 기름이 차고 넘칠 것이다.³³

기도의 말은 하늘로 올려지다가 공중에서 흩어지는 연기가 아니다. 기도는 천사가 금대접에 담아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지는 거룩한 향기이다.³⁴ 기도의 말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말은 한 사람의 삶의 방향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영향을 지닌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피그말리온 효과라 한다. 피그말리온 효과는 칭찬을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는 말처럼 학업능력이 뛰어나지 않은 학생에게 선생님이 잘하는 모습을 보니 곧 성적이 오르겠다며 격려해 줄 때, 똑똑하다고 칭찬해 줄 때 정말 학생의 성적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이다. 긍정적인 말을 상대방에게 계속 심어주면 그 긍정적인 말이 상대방을 살리는 좋은 영향이 된다. 예레미야 6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한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평소 생각한 대로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이다. 욥기에도 같은 말씀이 있다. 욥기 3장 25~26절은 이렇게 말씀한다. “(25)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26)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엄청난 부자였던 욥은 평소에 불안을 갖고 살았다는 말씀이다. “아, 이 많은 재산을 잃으면 안 될 텐데, 아! 내가 건강을 잃으면 안 될 텐데. 너무 불안하다.” 욥은 많은 부를 이루고도 늘 걱정과 불안의 말을 하며 살았다. 그런데 그게 정말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다. 성경은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특히 하나님께 올려지는 말인 기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정말 중요하다. 누가복음 6장 45절은 이렇게 말씀한다.

³³ 백용현, 『기도학교』 (서울: 두란노, 2019), 134.

³⁴ 요한계시록 5:8.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매 네 생물과 이십사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에 있는게, 즉 생각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것이다. 선한 마음을 갖으면 선한 말, 선한 기도가 나오고 악한 마음을 품으면 악한 말이 나와 그 기도는 올려지지 않는 기도가 된다. 민수기 14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 마음과 생각이 입으로 나와 기도로 올려질 때, 하나님 귀에 들린 그 기도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말씀하신다. 즉, 우리의 생각이 결과를 만든다. 생각대로 되는 것이다. 생각이 입으로, 기도로 나오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성경 말씀이다. 이것은 곧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과 같다.³⁵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듣고 이루시는 기도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산소호흡장치이다. 하나님은 나의 숨이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를 하라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와 상호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신다. 결국, 기도는 목숨처럼 중요할 정도로 나와 하나님의 깊은 관계가 중요함을 의미하고 또한 기도를 통해 상대방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하며 나 또한 상대방의 기도로 힘을 얻을 수 있는 공동체적인 관계의 아름다운 회복이 강조된다.

2) 설교는 무엇인가?

설교는 고대에 쓰인 성경 말씀을 설교자를 통해 오늘날의 언어로 재해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설교는 단순한 스피치가 아니고 원어적인 정의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설교를 신학적으로 보면, 어떻게 성경을 말할 수 있느냐? 라는 질문에서

³⁵ 마태복음 8장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오니라.

출발한다. 이러한 설교를 통해 설교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하는 목적이 존재한다. 그 은혜는 곧 ‘변화’를 말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목적이 존재한다. 그것은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의도를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이러한 거룩한 의미를 지닌 설교는 초대교회 시대를 지나 현대에 이르기까지 점점 그 비중이 커져왔다. 설교가 은혜롭고 감동이 있는 교회는 성도의 삶이 변화되고 이는 곧 교회의 부흥과 연결된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은 훌륭한 목사님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그러나 설교자 또한 한 명의 신실한 성도이자 예배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는 단순히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말하는 바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어야 한다. 현대 교회의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산다는 것은 엄청난 비극이다. 설교를 하는 목회자는 설교를 준비하고 선포하면서 설교의 1차적인 수신자는 성도들보다도 먼저 자기 자신을 향해 있다 생각하며 설교를 준비하고 선포해야 한다. 하나님은 거룩한 삶을 통해 항상 거룩한 설교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신다.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생각해보자. 그들은 심지가 굳고 견고한 믿음을 가진 성도였다. 그러한 성도의 리더인 초대교회의 설교자는 하늘의 모습은 닮은 설교자였다. 초대교회 설교자는 용감하고, 견고하며, 거룩한 사람들이었기에 그들의 설교는 자신을 먼저 부인하고 자기를 먼저 십자가에 못박는 일로부터 시작되었다.³⁶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면, 설교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설교자에게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아이러니하게도 설교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되는 말씀을 전하므로 생명을 주지만 잘못된 설교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한 사람을 살리느냐 죽이느냐는 설교자에게 달려 있다. 설교가

³⁶ E.M. 바운즈, 『설교의 능력은 기도에 있다』 전광규 역 (서울: 하나, 1998), 18.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준비되어 전해지기만 한다면 설교가 주는 유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잘못된 설교는 그 결과가 어떤 최악의 상황에도 비교할 수가 없다. 음식을 준비하는 요리사의 손이 더러워 세균이 많으면 그 손으로 조리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식중독에 걸리듯, 말씀을 받아먹어야 할 성도들에게 잘못된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의 영이 죽을 수도 있다. 이렇듯, 설교자는 설교자라는 은혜의 사명자라는 특권을 부여받음과 동시에 악에 노출되어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³⁷ 설교자가 악을 전하는 사탄의 사람이 되는지,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지는 온전히 설교자에게 달려 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생명을 전하는 설교자는 언제나 하나님을 갈망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이다. 그래서 그의 삶이 설교와 같이 거룩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자이다. 분명한 것은, 사탄에게 걸려 넘어진 설교자의 설교에는 생명이 없다. 그것은 영혼을 죽이는 설교이기 때문이다. 결코 이런 설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교훈을 힘입지 않는다. 그 말이 듣기에 달콤하여 귀를 간지럽힐 지언정 성령님은 그 설교자뿐 아니라 그 설교에서 생명의 강물이 되어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전한다.

그래서인지 생명을 전하는 설교,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는 설교는 설교자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한다. 설교자는 거룩하기 위해 애를 써야 하는데 이는 자기에 대하여 죽고,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박혀야 한다.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설교만이 생명을 준다. 십자가에 못박힌 설교는 오로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에게서만 나올 수 있다. 비록 언변이 뛰어나지 못하여 사람들 귀를 즐겁게 하지는 못할 지언정 십자가에 못박힌 설교를 한다면 그 말씀에는 힘이 있어서 귀로 듣는 말씀이 귀에만 있지 않고 마음에 깊이 박히어 깊은 울림을 주고 듣는 이로

³⁷ Ibid., 20.

하여금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기름부으심의 역사가 있다.

앞서 말했듯 신학적으로 설교는 고대의 언어를 오늘날의 언어로 재해석해야 한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많은 오류가 있다. 설교자는 자신의 뜻을 제외하고 온전히 성경의 메시지를 전하며 청중들의 필요에 응하는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데, 잘못된 설교자들은 설교에 있어서 성경 본문이 무시되고 복음이 없어진 설교가 많아졌다. 설교만 잘하면 훌륭한 목사님, 다시 말해 말을 잘하는 목사님은 훌륭한 타이틀이 예배를 수면 아래로 끌고 가고 있다. 하지만 성도들의 실질적인 내면의 모습, 성도들이 설교를 통해 목사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은 설교자가 오늘 전하려는 성경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번 주 설교를 하기 위해 어떻게 많은 것들을 성경대로 이겨냈는지 그 삶을 보고 힘을 얻기를 원한다. 그렇기에 설교자는 자신이 전하는 그 말씀의 가르침과 설교자의 행동이 일치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리처드 백스터는 자신의 저서인 참 목자상에서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은 눈먼 사람을 넘어뜨리거나 멸망의 길로 이끄는 목회자, 입으로 한 말을 행동으로 부인하는 목회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³⁸

이러한 점에서 사도요한은 요한일서 1장 3절을 통해 설교의 공동체적 의미를 강조하였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귄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귄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 말씀처럼 설교는 나의 말 잘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듣는 성도에게 그저 감동을 주기 위한 스피치 목적도 아니다. 그저 설교를 통해 설교자와 듣는 이가 설교라는 매개체로 서로 공감하고 교제를 나누며 이 교제를 통해

³⁸ 리처드 백스터, 『참 목자상』 최지남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8), 53.

하나님과의 교제로 나아가는 것이다.³⁹

성경말씀의 위대함을 설교자의 삶을 통해 보여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바로 설교자이다. 말이 어눌하고 억양이 드세더라도 설교자의 삶 자체가 설교와 같은 교회는 예배를 지키려는 힘이 있고 설교자를 존중하는 힘이 있다. 예수님은 삶 자체가 설교였다. 반면, 서기관들의 설교는 그저 스피치에 지나지 않았다. 다음의 표로 비교해보자.

예수님의 설교	서기관들의 설교
* 삶의 설교	* 삶이 없는 설교
* 권위 있는 설교	* 외식으로 가려진 설교
* 살아있는 설교	* 형식적인 설교
* 변화시키는 설교	* 의식과 의례를 위한 설교
* 구원이 목표가 되는 설교	* 전통을 위한 설교

예수님 설교와 서기관들의 설교 비교표⁴⁰

아리스토텔레스는 3가지의 설득 기법요소(에토스 ethos, 파토스 pathos, 로고스 logos)를 설명했다. 이 세 요소는 설교에 적용될 수 있다.

첫째, 에토스란 신뢰성이다. 예배가 하나님과 나, 나와 함께 하는 성도들과의 상호관계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배를 구성하는 설교에는 신뢰성이 기본이다. 이를 복음적으로 확장시키면, ‘거룩한 에토스’로 말할 수 있다. 이는 신학교에서 많이

³⁹ 이성호, 『예배를 알면 교회가 보인다』, 35.

⁴⁰ 이광복, 『설교목회』(서울: 환돌, 2010), 89.

튼게 되는 ‘Spiritual Formation’ 을 의미한다. 하나님과의 거룩한 에토스의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곧 영성형성 및 영성회복을 의미한다.⁴¹ 관계적 측면에서 인간관계도 정직과 신뢰가 기본이다. 설교가 아닌 일반적인 글을 쓸 때 문법과 띄어쓰기, 오타와 같은 요소가 틀린다면 그 글은 신뢰성을 잃는다. 그렇다면 설교는 더 하지 않겠는가? 설교는 글을 넘어 그 글을 성도들에게 들려주어야 하는 중요한 메시지이다. 독자와 성도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거짓되지 않고 솔직한 표현,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시는 그 뜻을 충분히 잘 해석하여 내 뜻은 제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그것이 좋은 설교문이고 전달력 있는 설교가 될 수 있다. 설교문과 설교가 거짓되고 가볍게 여겨지는 때는 설교자가 신뢰성 있게 설교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것은 설교자에 대한 성도들의 신뢰성을 잃게 되는 결과를 야기한다. 양치기 소년의 우화를 기억하는가? 양치기 소년이 신뢰성을 잃자 그의 스피치도 당연히 설득력을 잃고 신뢰를 잃었다. 양치기 소년이 정말 늑대가 나타났을 때, “여러분! 여기 정말 늑대가 나타났어요!” 라며 사실을 외쳤지만 마을 사람들은 결코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둘째, 파토스는 상대의 감성을 자극하는 것이다. 청중이나 상대방이 현재 어떠한 정서적 상태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설교자가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민감하게 파악할 수 있는 지도자의 덕목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배는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관계적인 연합을 이루기 때문에 상대방을 이해하고 격려하며 공감할 수 있는 덕목이 예배 안에서 충분히 일어나야 한다. 설교자는 성도들이 설교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도들의 감정 상태, 즉 영적 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⁴¹ 김영봉, 『설교자의 일주일』 (서울: 복 있는 사람, 2021), 89.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났는데, 설교자가 설교를 통해 죽음에 대해 가볍게 표현하는 것과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것에 대한 공감에 없는 것 같은 표현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같은 말도 설교자가 어떠한 감정과 어떠한 단어로 전달하는지에 따라 성도들은 은혜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듣는 이의 자세이지만 설교자는 성도들의 영적 상태에 늘 민감하게 인지하고 공감해주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것이 설교에 묻어 나와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설교를 준비할 때에 설교자는 설교를 듣는 이가 어떤 계층인지, 어떤 사람들이 듣는 것인지에 따라 비유와 예시를 적절히 사용하며 그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로고스는 논리와 원칙의 의미가 있다. 로고스는 글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 여겨지니 설교 준비에서는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화려한 판매 스킬보다 상품 본연의 퀄리티가 더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설교를 듣는 성도들에게 논리와 원칙에 맞는 질 높은 설교로 무엇을 어떤 이유로 주장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설교는 로고스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준비성 없는 설교, 화려한 스킬만 있는 설교는 원리, 원칙과 성경에 기반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할 힘을 잃는다. 이는 성경을 사용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설교자가 성경을 이용해 설교자가 원하는 말을 하게 되는 잘못된 오류에 빠지기 쉽다. 하버드대학교에서 신입생에게 가르치는 글쓰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OREO 공식이라 불린다. OREO에서는 1) O_Opinion: 먼저 나의 주장을 명확히 밝힌다. 2) R_Reason: 앞선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한다. 3) E_Example: 주장을 더 견고히 하기 위해 주장과 근거에 관련한 구체적 사례를 제시한다. 4) O_Opinion: 다시 한번 주장을 반복한다. OREO공식에 따른 글은 논리정연하기 때문에 표현하고자 하는 말의

핵심을 전달하기 쉽다.⁴² 사람의 글과 사람의 말도 많은 원리 원칙이 뒤따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는 더 철저한 준비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설교는 예배이다. 준비 없는 설교(예배)는 하나님과의 소통에 문제를 야기하며 교회를 이루는 예배 공동체를 흔들게 만든다.

내가 2021년에 경험한 일을 말하고자 한다. 2021년 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위치한 미국교회인 Covenant Love Church는 부족한 나에게 말씀을 전할 귀한 시간을 요청해왔다. 그렇게 여름이 시작하려는 6월 4일, 나는 내 아내, 아들과 함께 노스캐롤라이나에 도착했다. 나는 노스캐롤라이나를 향해 가는 비행기 안에서 의문을 품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부족한 나를 미국인 교회에서 부를 이유가 있을까? 훌륭한 목사님들과 경험 많은 목사님들이 나 말고도 참 많은데 그분들이 아닌 왜 나를? 그러나 그 곳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많은 계획들을 그곳에 펼쳐 놓으셨기 때문이다. 교회를 섬기시는 알브라이스 원로목사님과 담임목사님, 그리고 수많은 각각의 디렉터 목사님들을 만나며 이 교회가 왜 지역사회로부터 존경받는 교회가 되었는지, 또한 모든 교역자들이 성도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었는지를 알아차리는 데 채 이틀이 걸리지 않았다. 나와 미팅을 가졌던 Youth 담당 목사님이 하신 말씀은 여전히 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다. “Ministry is the message(목회하는 삶이 설교입니다).” 목회자로 살아가는 모든 목회의 시간이 곧 설교라는 것이다. 목사의 목회는 위로는 하나님을 향하고 양옆, 앞뒤로는 성도를 향한다. 하나님과 성도를 위한 목회의 여정 그 자체가 설교인 것이다. 또한 당시

⁴² 브런치스토리, “하버드 대학 글쓰기 OREO,” <https://brunch.co.kr/@withly/144> [2024. 12. 28 최종접속].

우리 가족에게 따뜻한 거처를 내어주고 모든 식사, 이동 등 모든 시간을 함께 하며 섬겨주신 팀 목사님 부부(Pastor Tim and Peggy)는 여전히 나에게 안부 전화를 해주시는 따뜻한 인품을 가지셨다. 교회의 모든 목사님들의 목회현장 그 자체가 설교와 같았고 나는 수일 동안 그분들과 함께 교제하며 자연스레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졌다. 교회 성도들 역시 그들의 삶을 보고 은혜를 받으며 삶과 같은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신앙생활을 한다. 그렇게 성도들 역시 설교자와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진 것이다. 예배를 이루는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전하시는 바를 전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설교자가 살아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설교는 연설이 아니다. 연설은 삶이 없어도 가능하지만, 설교는 삶이 없이 불가능하다. 설교자는 말씀을 삶에서 지켜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전함으로 설교자와 청중은 함께 교제를 나눈다면 자연스럽게 온전하고도 완전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게 된다. 이것이 설교가 갖는 공동체성의 아름다움이다.

3) 찬송은 무엇인가?

이사야 43장 21절은 말씀하기를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음받았다고 말씀한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찬양의 자리에 있는 것은 정말 당연하고도 귀한 일이다.

찬송은 멜로디가 있는 기도이다. 그런 점에서 기도와 찬송은 크게 다르지 않다. 찬송이 기도와 다른 것은 찬송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노래로 기도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⁴³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다. 사람은 기분이 좋을 때 늘 흥얼거리며 노래를 부른다. 우리 삶에 가장 기분 좋은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나를 위해 하신 일들을 경험하고 기억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을 찬송하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예배자세이다.

시편 92편 1~3절은 이렇게 말씀한다. “(1) 지존자여 심현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2)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3)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배품이 좋으니이다.”

위의 시편 92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정말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권면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찬양을 요구하시며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시편 92편 2절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말한다. 인자하심의 원어는 헤세드(Hesed)로 신실함, 성실함을 의미하는데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상호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마땅히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근거가 된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예배의 온전함과 거룩함을 느낀다. 온전함과 거룩함은 깨끗하다는 것이고 깨끗함은 옳음을 표현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힘입도록 창조되었다. 하나님은 이 찬양의 예배를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 여러 악기들의 조화를 이루게 하셨다. 이는 마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어 예배 공동체의 조화를 이루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은 조화의 비밀을 숨겨두셨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찬송을 불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널 때,

⁴³ 이성호, 『예배를 알면 교회가 보인다』, 69.

그들은 다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다. 조금은 길지만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회중찬송의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에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찬송 가사를 쉬운말성경 번역본으로 적어보겠다. 출애굽기 15장 1~18절의 쉬운말성경 번역본은 이렇게 말씀한다.

(1)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를 찬양하며 노래 불렀다. 나, 주께 노래하리라. 한없이 높고 영화로우신 분, 말들과 말 탄 자들을 바닷속에 던져 넣으셨네. (2) 주는 나의 힘ियो 나의 노래, 주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찬양하리라. 주는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내가 그분을 높이리로다. (3) 주는 용사이시니, 그 이름은 주이시라. (4) 주께서 파라오의 전차들과 그의 군대를 바다에 처넣으시니, 파라오의 용맹한 장교들이 모두 홍해에 잠겨 버렸네. (5) 깊은 바닷물이 덮쳐 버리니, 그들이 모두 돌처럼 깊숙이 바닥에 가라앉았네. (6) 주여, 당신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스러워졌나이다. 주여, 당신은 오른손을 휘두르시어 원수들을 산산이 쳐부수었나이다. (7) 주께서는 놀라운 힘으로 당신과 맞서려는 자들을 꺾어 버리셨네. 타오르는 분노로 그들 모두를 검불처럼 태워 버리셨네. (8) 주께서 콧김 한 번 내뿜으시니, 바닷물이 우뚝 서고 파도가 독처럼 곧게 섰네. 깊은 물이 바닷속 한가운데 엉겨 붙었네. (9) 원수들이 크게 외쳤네. ‘내가 그들을 뒤쫓아 가리라. 내가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내가 그들을 약탈하여 내 욕심을 채우리라. 내가 칼을 뽑아 들어, 그들을 베어 버리리라.’ (10) 그러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니, 바닷물이 원수들을 덮쳤네. 거센 파도 속에, 원수들이 납덩이처럼 가라앉아 버렸네. (11) 오, 주여, 신들 중에 당신 같으신 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당신같이 그토록 거룩하시며 영광스러울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토록 두려우며 찬양받을 만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토록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12) 주께서 오른손을 내뿜으시니, 땅이 원수들을 삼켜 버렸네. (13) 주께서는 몸소 건져 내신 이 백성을 한결같은 사랑으로 이끄셨네. 힘 있는 손으로, 주께서 마련하신 거룩한 거처로 인도하셨네. (14) 못 백성이 이 소식을 듣고 무서워 떠네. 블레셋 주민들이 심히 괴로워하고, (15) 에돔 부족의 우두머리들이 겁에 질렸네. 모압의 권력자들이 부들부들 떨고, 가나안 주민들이 넋을 잃었네. (16) 모두가 공포와 두려움에 질려 있네. 주여! 주의 백성이 지나갈 때까지, 주께서 불러내신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주의 강한 팔에 그들이 돌처럼 굳어지고 말았나이다. (17) 주께서는 이 백성을

불러내시어 주께서 차지하신 산에 정착시키실 것이로소이다. 오, 주여!
 이곳은 주께서 몸소 머무시려고 마련하신 자리로소이다. 오, 주여!
 이곳은 주께서 손수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18) 주께서 영원무궁토록
 다스리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과정 중에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런 찬송은 힘이 있다. 찬송은 예배이기 때문에 나의 찬송을
 통해 하나님은 이중적 섬김의 의미로 나의 힘이 되어 주시고 나의 구원됨을 내 삶을
 통해 나타내주신다. 하나님의 백성은 처음부터 노래하는 백성이었고, 요한계시록
 15장에 따라 마지막 때까지 노래할 것이다. 그리고 천국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송 소리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 찬송이 힘이 있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
 찬송이 다른 노래들과는 확연히 다른 이유가 분명히 있다. 찬송을 통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같은 찬송을 하더라도 그 찬송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또한 날마다 다르다. 그래서 매일, 매주 똑같은 찬송가를 불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우리를 대신해서 일해주시는 그 역사는 날마다 새로워진다.

시편 22편 3절을 통해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⁴⁴ 찬송을 통해
 역사하시려는 하나님임을 깨닫게 되는 말씀이다. 이 말씀을 증명하는 또 다른
 말씀이 있으니 그것은 역대하 20장 22절이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산 주민들을 치게
 하시므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이다. 교회가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을 깨달아 손으로 만진 바
 된다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공동체는 더욱 더 하나로 단결될 것이다.⁴⁵ 하나님이

⁴⁴ 시편 22:3.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⁴⁵ 테리 로, 『찬양과 경배의 능력』 전가화 역 (서울: 믿음의집, 1988), 186.

그 교회 속에 역사하여 도우시기 때문이다. 또 다른 예를 보도록 하자. 시편 8편 1-2절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이다. “(1)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2)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어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다윗의 이 찬송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다윗이 쓰고 있는 무기는 여호와의 이름이다. 우리 삶에 가장 달콤한 것으로 다가오는 사탄 앞에서 우리를 방해하는 사탄 앞에서 우리는 다윗처럼 찬송한다면 2절 말씀에 나오듯 원수들(사탄)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잠잠케 된다. 그러므로 찬송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능이다. 세상에 빠져있는 누군가를 예배 공동체로 회복해야 한다면, 그 누군가가 사탄의 달콤한 유혹속에서 아직 헤어 나오지 못했다면, 가장 먼저 찬송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누가복음 6장 45절은 마음에 있는게 입으로 나온다고 하였다. 민수기 14장 28절은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행하시겠다 말씀하신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궁극적으로 악한 세력과의 전투를 결정짓기 때문에 마음에 악을 품어 악이 입에서 나오는 삶이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을 품고 주님의 찬송이 입에서 나오는 삶이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찬송할 때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여 영적 승리의 경지에 도달한다.⁴⁶

이런 찬송도 시대가 지나며 변화되었다. 그 변화는 찬송의 의미가 변질되는 변화가 아니라 찬송을 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하는 도구와 수단의 변화를 의미한다. 가장 큰 변화의 예로, 시대가 흐르며 변화된 악기의 다양성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 예배를 구성하는 음악의 본격적인 개혁이 시작되었다. 다윗은 레위인들을 모아 찬송을 부르게 했는데, 이것이 지금 성가대의 시초가 된다.

⁴⁶ Ibid., 203.

정확하게 하자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중찬송이 되겠지만, 다윗은 레위인들로 성가대를 구성했고, 수많은 악기들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사용하였다. 중세시대에도 예배 음악은 변화를 겪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는 당시에는 음악은 곧 교회 음악이었다. 지금은 음악의 종류 중에 교회 음악이 있지만 당시만 해도 음악이 곧 교회 음악이었다. 그만큼 교회 음악의 영향력이 대단하게 발전했다. 그러나 이것은 예배를 변질시켰다. 교회 음악은 성직자들만의 영역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교회 음악의 영향력이 방대해지면서 교회음악을 위한 학교들이 생겨났다. 음악은 곧 교회음악이었던 시절이어서 교회음악을 위한 학교가 생겨났고 이 학교는 더 나아가 성직자를 배출하는 신학교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이러한 사회적인 배경 때문에 교회 음악은 음악을 잘 다루는 성직자들만의 영역이 되어버렸다. 이에 따라 성도들은 찬송의 기회를 잃었고 예배의 관람객이 되었다. 그렇게 예배는 훼손되고 변질되었다. 그러나 수동적인 참여를 조장하는 중세 카톨릭의 잘못된 예배형태를 개혁하는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찬송에도 건강한 회복의 바람이 불었다. 모든 성도들이 예배의 참여자가 되어 자유롭게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다. 위대한 종교개혁가 마틴루터는 찬송가를 만들기도 할 정도로 성도들의 예배를 향한 공동체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회복시켰다. 찬송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함으로 하나님은 기쁨을 받으시고 공동체는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다.

사무엘상 10장 5~7절은 현대인의 성경 번역본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한다.

(5) 그 후에 당신은 블레셋군의 주둔지가 있는 '하나님의 산'으로 가게 될 것이요. 당신이 그 곳에 도착하면 산당에서 떼 지어 내려오는 예언자들을 만날 것이며 그들은 내려오면서 피리를 불고 북을 치며 수금을 켜고 비파를 타면서 예언할 것이요. (6) 그때 당신은 여호와와의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 당신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다른 사람이 될 것이요. (7) 그때부터 당신은 상황에 따라 행동하시요.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실 것이요.

사사시대에는 선지자(예언자)들이 음악을 연주하며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다.

선지자들은 음악을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다고 말씀한다. 우리가 드리는

온전한 찬양은 공동체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하며, 하나님은 찬양하는 개인과

함께 찬양하는 그리스도의 몸 된 공동체를 위해 기적을 일으키신다. 이것이 찬양의 힘이다.

4) 성찬은 무엇인가?

기독교 성례는 성찬과 세례 두 가지이다. 성례 역시 기도, 설교, 찬송과 더불어 예배의 구성요소이다. 특히 성찬과 세례는 공동체적 예배 정신 그 자체를

의미하기에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시간이 된다. 하지만 현대 예배에서 기도, 설교, 찬송에 비해 성례를 중요하지 않게 여김으로써 예배의 공동체 정신이 흔들렸다.

성찬과 세례의 의미는 공통적으로 성례를 하는 의식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의식을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공동체와의 “만남”에 있다.⁴⁷ 이 두 의식

중 먼저 알아볼 성찬은 공동체의 예배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성경에는

공동체가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예배 전통이 기록되어 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따르면, 예루살렘 교회는 매일같이 성전에 모여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집에서는

떡을 떼며 기쁨과 진실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는 데 힘썼다.⁴⁸ 초대교회 때부터

⁴⁷ 네이션 D 미첼, 『예배, 신비를 만나다』 안선희 역 (서울: 바이북스, 2014), 115.

⁴⁸ 제임스 F 화이트, 『하나님의 자기 중심의 선물 성례전』 김운용 역 (서울: 예배와설교아카데미

성찬은 성도들이 힘써서 지켰던 부분이다.

성찬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에게 성령의 은혜가 수여되는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다. 따라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성찬은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최선의 도움이 된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 성장에 있어서도 성찬은 은혜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 성찬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그 안에는 성령의 능력이 있는 기적과 같은 시간이다.

공동체성을 이루는 예배는 교회의 본질이다. 성찬은 그런 교회를 회복시키고 교회의 본질, 예배를 회복시키는 힘이 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교회라는 공동체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교회의 본질을 생각하고 회복하는데 성찬이 중요한 방향을 제시한다.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성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눔으로써 서로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 성찬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예수님을 기념하는 마음, 성령의 부르심, 공동체의 교제 등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나는 이 성찬이 우리를 하나로 모아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만들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많은 것들이 조화를 이룬다고 믿는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눈, 영적인 눈, 신앙의 눈으로 성찬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한다. 본질적으로 성령의 힘을 통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찬은 우리를 위한 선물이다. 또한 가장 건강했던 교회의 모델이 되는 초대교회 때는 예배 때 성찬을 거행했음을 분명히 말한다. 사도행전 20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한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초대교회 시대의 성찬은 축하의 모임이었다. 그 분위기는 기쁨과 감사가 넘쳤다. 사람들은 각자 음식을 준비하여 함께 식사를 한 후, 빵과 포도주를 위한 기도를 드렸다. 그러나 2세기부터 이 함께하는 식사는 폐지되었다. 이 시기부터 아마도 성찬의 의식이 두 가지로 나뉘어졌기 때문이라 추측할 수 있다. 첫째, 성경봉독과 설교. 둘째, 기도와 찬양. 어찌 되었든지, 당시 사람들이 성경을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런 성찬의 의식을 통해서만 성경 지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초대교회의 사실이다. 그 후, 성찬식이 시작되었다. 사회자는 빵과 포도주를 위에 성령의 역사가 임재하기를 기도하였다. 그 후, 빵과 포도주를 분배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숫자가 증가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한 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불가능했다. 당시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한 몸이 가지는 통일성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 장소로 흩어지게 되는 것에 상실감을 느꼈다. 이러한 통일성과 유대감을 보존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도시에서는 감독 교회의 성찬식에서 사용했던 빵을 썬어 사용하기도 했다. 이것이 “분병”(fragmentum)의 시초이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성찬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의 영혼에게 성령의 은혜가 수여되게 하는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요 통로라고 고백했다. 사람에게 영적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의 성찬은 최선의 도움이 된다. 또한 사람의 영적 성장에 있어서도 주님의 성찬은 은혜 가운데 성장하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일에 있어서도 최선의 길이 된다.

중세 시대 성찬은 지극히 미신적이었다. 특히 성찬에 분급되는 빵은 마법의 약으로 여겨졌다. 성찬에 사용되는 빵과 포도주는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부활하여 죽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과 피인 빵과 포도주를 받는다는 것은 만병통치약을 얻게 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또한 성찬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힘을 얻고 회복되는 것이지만 그것을 넘어 성찬을 통해 예수님 그 자체가 된다고 하여 성찬의 본연의 의미에서 꽤나 변질되기도 했다. 특히나 14세기 1347~1351년, 약 3년간 중세 유럽을 뒤덮었던 흑사병 사건 이후로 카톨릭은 사제 교육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졌기에 성찬 본연의 의미에 대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사제들이 나왔다.

그들은 성경에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성찬을 쉽게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 성찬을 미신적 이해로 전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성찬에 신비롭고 마법적인 힘이 있다고 믿게 되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흑사병 이전인 13세기 1215년 제4차 라테란공의회에서의 성찬 논란에 있다. 라테란공의회 의장은 1123년 시작되었던 1차 라테란공의회 때부터 4차 라테란공의회 때까지 교황의 의장이었다. 성찬은 떡과 포도주로 분급이 이루어지는데, 4차 라테란공의회는 성도들에게 떡만 주기로 결정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는 것이 위험하다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카톨릭 교회에서는 성도들에게 떡을 주는 것조차 위험하게 여겼고 그 결과 사제들만 떡과 포도주를 나누고 성도들은 그저 그 모습을 구경만하는 관람객이 되어 버린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성도들의 예배 참여를 저조하게 만들었고 예배의 본질을 변질시켰다.

카톨릭 교회의 무지하고 무례한 성찬은 점점 더 도를 넘어 예배를 무너뜨리기 시작했는데, 카톨릭 교회는 사제가 떡을 들어 올리는 것을 성도들이 보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있다고 여겼다. 왜냐하면 카톨릭은 성도들에게 예배에 대해 미신적이고 마법적인 요소를 강조해왔기 때문에 카톨릭 예배(미사)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소원하는 모든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고 믿었다. 예를 들어, 사제가 성찬할 때 높이 올려 드는 빵을 보는 것 만으로 소화가 잘된다고 믿었다.

이것은 중세시대 카톨릭 교회의 연옥과 연결되어 성도들을 예배에서 완전히 제외시켜 버리게 되었고, 돈만 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

마틴루터는 16세기 종교개혁을 일으키며 예배의 개혁, 특히 성찬의 개혁을 통해 모든 성도들은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고, 성찬의 관객이 아니며, 성찬할 때 빵만 받는 것이 아니라 떡과 잔 모두를 분급받도록 하여 성도들의 능동적 참여를 회복시켰다. 성찬의 변화는 예배 본질을 회복시켰고 이제 예배는 어떠한 미신적이고 신기한 기적들이 아니라 성경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믿음을 기반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성도들이 함께하는 능동적인 예배 참여를 일으켰다. 올바른 성찬의 회복은 개신교의 가장 큰 특징이 되었으며 수동적이고 관람객이었던 성도들을 예배의 능동적인 참여자로 변화시켜 예배의 본질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루터는 예배의 본질에 있어서 절대 타협은 없다는 원칙을 우리에게 알려 주었다.

주님의 만찬에서 떡을 떼는 것은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됨의 표징이다. 고린도전서 10장 16~17절에서는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이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말씀한다.⁴⁹ 특히 이 말씀에서 나오는 “참여”는 헬라어 원어로

‘코이노니아’로 쓰인다. 코이노니아는 참여의 의미 속에 교제와 연합, 즉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의미이다. 그래서 성찬은 우리의 하나됨,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하나됨이 중요하다는 강력한 표현이다. 성찬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우리의 온전하고 완전을 향한 예배를 점검케 한다.

⁴⁹ 화이트, 『하나님의 자기 중심의 선물 성례전』, 122.

5) 세례는 무엇인가?

기독교 성례는 성찬과 세례 두 가지이다. 이 두 의식의 의미는 의식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의식을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공동체와의

“만남”에 있다고 하였다. 이제는 두 의식 중 세례에 대해 알아보자. 세례는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머리에 물을 뿌리거나 물에 몸을 담그는 예식으로 간단히 설명될 수 있다. ‘세례’의 원어인 Baptizo ‘βαπτίζω’는 ‘씻음’ 또는 ‘깨끗하게 함’을 의미한다. 내 옛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옛 사람을 벗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구원받은 자가 새로운 삶을 사는 증표이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에서도 세례는 구원하는 표라고 말씀한다.

이러한 세례에는 공동체성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들의 모임, 세상 밖으로 부름 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의 일원이 된다. 즉, 구원은 하나님 은혜의 선물을 받은 공동체 안에서의 삶에 관계된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의 구원은 없는 것이다.⁵⁰ 구원이 교회 밖에서도 있다고 말하는 것은 가짜이고 이단이다. 그렇게 된다면 더 이상 세례는 필요한 것이 아니다. 세례가 구원의 증표이기 때문이고 세례 받은 이는 구원받은 자로서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되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서는 세례를 베풀어서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교회, 즉 에클레시아의

⁵⁰ Ibid., 81.

공동체로 부르라 말씀하셨다. 에클레시아는 세상 밖인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의 모임이다. 따라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세례받는 이가 성령과 믿음으로 우리의 죄에 대하여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법적으로 교회 공동체에 속한 정식회원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 거룩한 기쁨의 성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만드신 것으로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에서 더 풍성한 부흥의 공동체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베풀어야 하는 기쁨의 축제이다.

세례는 예배에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 세례는 공동체의 의미를 갖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선언하는 의식이 세례이다. 세례를 받을 때 우리의 머리가 적셔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묘사하고 이전의 거듭나지 못한 나의 행동과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전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 즉 몸을 이루는 모든 성도들과 연합하게 되는 예배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 생각해 보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연합이 ‘죄에 대하여 죽는 것’ 뿐만 아니라 ‘새 생명 속에 사는 것’ 까지 포함한다고 말한다. 로마서 6장 5~8절은 이렇게 말씀한다.

(5)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6)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7)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8)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세례를 통해 죄에서 벗어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의로운 삶을 살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리스도인은 세례를 받음으로써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이것은 우리가 새로운 생명의 원리에 의해 지배를 받으며 그 가운데 교회를 이루어 살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삶이 예배를 통해 더 풍성히 이루어진다.

예배를 구성하는 데 중요한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세례를 보자. 세례는 ‘선물’의 의미와 ‘공동체의 연합’을 의미한다. 먼저, 세례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선물로서의 세례, 다시 말해 선물과 같은 예배이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한 선물,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온전한 마음을 표현하시기 위해 우리보다 먼저 그 마음을 선물로서 표현하셨는데 그것이 예배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받는 시간이 된다. 예배는 축제이기 때문에 선물받는 자는 기쁨을 선포하며, 선물받는 우리의 기쁨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나가신다. 따라서 예배를 통해 선물 받는 사람의 자세가 어떠한지, 선물 주는 이의 마음이 선물 받는 수신자의 자세와 태도로부터 행복감을 주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선물을 주신 분은 선물 받은 사람이 그것을 소중하게 사용하길 원한다.

크리스찬에게 선물의 의미를 지닌 세례는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우리가 용서를 받고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우리에게 선물인 것이다. 결국, 예배를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기 위한 징표로 세례를 받는 것이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순간,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 못박히며 저 수면 아래에 묻히게 된다. 그렇게 우리는 자유함을 얻고 선물받은 삶을 사는 것이다. 선물받은 삶을 산다는 것은 매일의 삶이 예배자로

산다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순간이 선물 받은 삶이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있으며 모든 순간들에 기쁨이 넘쳐야 한다. 내가 혹시 삶에 기쁨이 없고 힘이 없으며 감격이 없다고 느껴지는가? 하나님께 선물을 받아야 한다. 나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한다. 예배가 회복되면 선물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다. 선물받은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숨 쉬는 모든 순간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삶이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삶, 그것보다 더 큰 선물이 있을까?

세례를 받는 순간 우리는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는 일원이 된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같이 희생적인 삶을 살도록 성장하여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세례를 통해 그런 삶을 깨닫고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것이다. 세례는 예배를 완성시키는 초석이 된다.

로마서 6장 8절의 말씀은 세례에 대한 강조의 구절이다. 그리스도와 우리(성도의 공동체)의 연합이 영원함을 말한다. 바울이 다시금 이 말씀을 반복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에게 새로운 삶으로서의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함을 알리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한 성도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한다. 교회에서 세례가 이루어지는 것은 세례를 받음으로 에클레시아가 더 풍성해진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교회 공동체의 가족이 늘어나기 때문이며, 그렇게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공동체가 더 풍성해지고 더 풍족해지며 예배는 더 온전하고 거룩해져 간다.

2020년이 시작되면서 급속도로 퍼졌던 Covid-19, 전례없는 팬데믹이 시작되었다. 사람들은 이를 팬데믹 시대라 불렀다. 정신없이 닥쳐오는 팬데믹에 의해 점차 교회는 길을 잃었다. 어느 교회라고 할 것 없이 많은 교회들이 앞 다투어 선한 목적이라며 교회 문을 스스로 닫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공동체를 의미하는

예배에 대한 정체성이 흔들렸기 때문이다. 예배를 구성하고 이루는 기본적인 기둥같은 세례의 의미가 뿌리 채 뽑혔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없이 팬데믹 시대에 대면예배가 사라지며 온라인 비대면 예배라는 새로운 플랫폼이 펼쳐지기 시작했는데 이때에 우리는 예배를 구성하는 세례의 의미를 다시금 특별한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회복의 시기로 받아들여야만 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조차 교회의 존재 여부와 대면예배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두세 명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타협하며 교회는 공동체성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집에서 편하게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된다는 생각들이 과도처럼 밀려왔다. 두세 명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이는 뒤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편의에 따라 해석하면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통해 예배의 공동체성을 잃게 되었다. 실제 통계적으로 많은 교회가 사라졌고 도처에 있던 십자가는 철거되었다. 그 많던 신앙인들도 비신앙인이 되어갔다. 앓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사람의 심리가 공동체성을 잃은 교회를 무너뜨린 것이다. 우리는 이 때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 세례는 예수님과 나와의 연합뿐만 아니라 많은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과의 공동체적인 연합을 이룬다.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 부름 받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과 거룩한 교회공동체를 이루겠다는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겠다는 징표이다. 이를 통해 세례 받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의 제자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믿음으로 우리를 예수님께 연합시키는 단결과 결합의 의미를 지켜내야 한다.

마지막으로 디다케(Didache)를 통해 공동체적인 세례의 개념을 알아보자. 기독교 역사상 성경책 다음으로 중요한 책이라고 여겨지는 책은 디다케이다.

디다케는 가장 오래된 초대교회를 위한 도덕책이다. 디다케가 언급하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은 “우리”, 그리고 “하나됨” 연합의 관점이다. 예배 때 성찬은 예배를 이루는 구성 요소라고 했다. 디다케는 성찬 때 나누는 빵, 떡 조각이 우리를 하나로 모이게 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그렇게 교회도 연합해야 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또한, 디다케 7장은 세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7:1 - 이렇게 세례를 베푸십시오. 이 모든 것을 먼저 말하고 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흐르는 물로 세례를 하세요. 7:2 - 만일 그대에게 흐르는 물이 없으면, 다른 물로 세례를 하세요. 차가운 물로 할 수 없으면 따뜻한 물로 하세요. 7:3 - 그대에게 둘 다 없으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머리에 세 번 물을 부으세요. 7:4 - 세례 전에 세례를 하는 사람과 세례를 받는 사람은 미리 금식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으면 금식하세요. 그대는 하루나 이틀 전에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 금식하라고 명령하세요.

디다케 규정에 따르면 첫째, 강이나 시냇가에서 몸을 담그는 것이 정식이지만 상황에 따라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다. 둘째, 세례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셋째, 공동체적인 세례를 권유한다.⁵¹

결국, 성찬과 세례라는 기독교의 두 성례를 통해 우리는 의식 그 자체를 넘어 만남을 발견해야 한다.⁵² 먼저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만남이고, 다음은 그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이들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만남이다.

마무리하면서, 예배의 5가지 요소인 기도, 설교, 찬송, 성찬, 세례 모두는 결국 공동체성을 강조한다. 교회를 이루는 성도의 교제, 함께하는 만남의 의미가 예배에서 중요하게 작용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나누는 식탁의 교제, 친교,

⁵¹ 김재수, 『12사도를 통해 주시는 주님의 가르침 디다케』(논산: 대장간, 2019), 129.

⁵² 네이션 D 미첼, 『예배, 신비를 만나다』 안선희 역 (서울: 바이북스, 2014), 119.

격려, 중보기도 등은 정말 중요하다. 실제로 초대교회 시대에 친교와 나눔의 시간(지금의 광고 및 새가족 환영 시간)이 예배에서 비중을 두어 긴 시간 동안 중요하게 여겨졌다.

C. 제사법에 나타난 예배의 공동체성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제사법은 5개로 나뉜다. 이를 5대 제사라 하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로 구분된다. 5가지의 제사는 5가지의 예배 형태를 말하는 것과 동시에 이 5가지의 예배 안에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 첫째, 하나님의 용서하심이다. 둘째, 이웃과의 나눔 및 섬김이다. 셋째, 민족 간의 평화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제사법을 통한 “공동체성”이다. 이 5가지의 예배 형태만으로도 작게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크게는 나라를 이끌고 경영하기에도 충분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가지 교훈을 준다. “예배”에 충실하고 “예배”에 승리하는 것이 곧 “만사형통”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하고 이웃을 섬기고 서로 나누는 풍족함을 누리며 살게 되며 이는 서로의 평화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듯 제사법에도 예배의 공동체가 강조되었다.

1) 번제

번제란 제물을 희생시키는 희생제사로 제물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고 깨끗이 한 뒤 가죽을 벗긴 후 가죽을 제외한 제물 전체를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것은 생명이 있는 것을 희생시킴으로 자신의 생명을 대속하는 의미를

갖는다. 가죽을 벗겨내어 불에 태우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된다. 첫째로, 우리의 죄 된 옛 사람의 모습을 가죽에 빗대어 죄 된 옛 모습을 벗어낸다는 의미를 갖는다. 둘째로, 우리의 옛 사람은 하나님께 악취를 풍긴다. 죄는 향기롭지 않고 악취가 나기 때문이다. 우리의 옛 사람의 의미처럼 가죽 역시 불에 탈 때 향기가 나지 않고 악취가 난다. 이러한 의미로 가죽은 벗겨 불에 태우지 아니하고 레위기 7장 8절에 따라 제사장의 사례로 드러진다. 이렇게 가죽을 제외하고 속의 모든 것을 불에 태우는 우리 속사람의 완전하고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이다.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이다. 이는 ‘올라감’의 뜻을 갖는다.⁵³ 제물이 불에 태워질 때 올라가는 그 연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 제물이 불에 태워지는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듯 예수님은 자신의 살가죽이 채찍과 창에 찢기시고 못에 의해 구멍이 뚫리시며 십자가에서 결국 생명을 희생하심으로 하늘 승천하셨다.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옛 모습을 버릴 수 있게 되었고 새 사람으로서 완전하고 온전한 헌신을 다짐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자신을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를 죽이고 완전하고 온전한 희생과 헌신의 자세로 예배해야 한다.

번제물에는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흠 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한다. 번제를 위해 드리는 흠 없는 수컷에는 양, 소, 염소가 있으며 가난한 사람들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하나님께 올려 드릴 수 있다. 번제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회막 문 앞 제사장에게 제물(예물)을 가져온다.
2. 제물에 안수를 한다.
3. 제물을 죽인다.

⁵³ 최승목, 『성막, 하나님을 꿈꾸다』, 145.

4. 제사장이 그 피를 번제단 네 면에 뿌린다.
5. 번제물의 가죽을 벗겨 그것은 제사장이 취한다.
6. 번제물 각을 떼서 조각으로 나눈다.
7. 제사장은 제단에 불과 나무를 준비한다.
8. 제사장은 조각으로 나눈 제물과 그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올린다.
9. 제물의 내장과 다리, 그리고 정강이를 물로 씻는다.
10.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사른다.⁵⁴

이런 철저한 예식 순서를 거치는 번제에는 다음과 같은 성경적 의미가 있다. 레위기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한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이 구절에서 언급된 속죄는 히브리어로 '코페르'로, 이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사용한 '역청'과 동일한 단어이다. '코페르'는 '덮어줌'을 의미하며,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덮여지고 우리의 생명이 구속된다는 뜻을 내포한다.⁵⁵ 노아 또한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코페르'를 통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으며, 방주도 하나님의 은혜로 역청(코페르) 덕분에 물이 새지 않고 방주에 탄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은 생명을 보전 받았다.

이러한 번제가 의미하는 공동체성이 무엇인지를 고찰해보자. 번제에서 공동체성이 중요한 이유는 번제가 단순히 개인의 신앙 성장, 개인의 완전하고 온전한 헌신을 넘어 공동체 전체의 영적 상태를 개선하고, 온 성도가 하나되는

⁵⁴ Ibid., 146.

⁵⁵ Ibid., 147.

연대의식을 넘어서 온 성도와 하나님이 하나됨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인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출애굽기 29장 42절⁵⁶에서 하나님은 번제를 통해 “내가 그 곳에서 너희를 만나 주겠고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만난다는 의미는 그저 만난다는 이미지를 넘어 약혼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다. 온 백성들은 예배를 통해 모두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온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완전하고 온전한 헌신과 희생의 마음(번제)으로 예배할 때 진정으로 하나 되어 번제의 의미를 완성하게 된다. 이를 통해 깨닫는 것은 번제의 정신은 개인의 헌신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영적 상태를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모든 성도가 번제의 정신을 갖는다면 개개인의 신앙 성장뿐 아니라 공동체의 가장 이상적이고 완전한 하나됨을 경험하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2) 소제

소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성령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제사이다. 곡식가루에 기름과 향을 넣어 굽거나 부치거나 삶아서 드리는 소제의 히브리어 원어는 ‘민하’이다. 소제는 매일 드리는 제사로 번제와 함께 드려지며 성소의 떡상에 차려 놓는 ‘진설병’도 일종의 소제이다.

레위기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한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이 말씀에서 ‘누구든지’는 네페쉬 라는 원어로 남녀를 구별하지 않을 때

⁵⁶ 출애굽기 29:42(쉬운성경).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회막 입구에서 날마다 여호와 앞에 바칠 번제이다. 내가 그 곳에서 너희를 만나 주겠고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쓰는 누구든지의 의미이다. 그리고 ‘고운가루’는 솔레트라는 원어이다. 솔레트는 거친 가루라는 뜻이지만 성경에는 고운가루라고 번역이 되어 있다. 이것은 성경 텍스트 그 이상을 이해해야 하고 당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들은 계속해서 전쟁의 와중이라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은 거친 가루였다. 그러나 그들이 거친 가루를 반드시 맷돌이나 절구에서 갈고 빻아 고운가루로 하나님께 드려야 했기 때문에 성경에는 고운가루로 나와 있다. 이것은 여전히 거친 가루처럼 다듬어지지 않은 그 누구도 제사(예배)를 통해 내 자신이 갈고 빻아져서 내 자아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깨어진 고운 가루로 드러나는 것이다.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께 드러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 앞에 거친 가루같은 그 자신이 고운가루로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제는 이러한 거친 가루를 고운가루로 만들고 그 후 기름을 붓는다. 기름은 소중하고 귀한 것을 의미하며 성령을 의미한다. 사무엘상 10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한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우리의 거친 것들이 다 고운 가루처럼 깨어지고 성령으로 귀하게 기름부음 받아 성령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야 함을 소제라는 제사, 예배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사야 61장 1~3절⁵⁷ 말씀도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성령의 기름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⁵⁷ 이사야 61장 1~3절. (1) 주 여호와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2) 여호와와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3) 무릇 시온에서 슬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 하며 기름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간힌 자에게 농임을 주시고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것이 바로 소제인 것이다. 기름을 친 다음 유향을 놓는다. 성경에서 이 향은 ‘성도의 기도’ 라고 말씀한다.

시편 141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한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한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매 네 생물과 이십사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기도로 하나님께 정성스러운 향을 올려 드려야 한다. 예배를 통한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이 된다. 소제에서 쓰인 유향은 동물의 냄새를 제거하는 역할을 했다. 예배를 통한 나의 육적인 자아, 세상 가치에 속해 있든 마음을 모두 태워버리고 아름다운 기도의 향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것이다.

레위기 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한다. “네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 있지 않은 떡을 말한다. 누룩은 발효물질로 부풀려 크게 변화시키는 성질이 있다. 또한 레위기 2장 11절에서는 꿀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다. 꿀 역시 변질시키는 성질이 있기 때문이다. 번제에서도 흠 없는 것을 드리라 하셨고, 소제에서도 우리의 육적인 거친 것들이 부서지고 갈라져 새롭게 태어나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사(예배)에 드려지는 모든 것 역시 변하는 성질은 드러질 수가 없다. 우리의 예배 참여, 기도, 찬양, 봉사, 헌신, 헌금 등 모든 것에 크게 보이려는 변질은 있을 수 없다. 예배 안에서 나를 드러내 보이려는 교만, 그것이 바로 누룩이다. 하나님은 소제를 통해서 우리의 것이 다 깨어져 성령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하고 낮은 자가 되기를 말씀하셨다.

이러한 소제가 의미하는 공동체성이 무엇인지를 고찰해보자. 소제에서 공동체성이 중요한 이유는 소제의 의미에서 발견할 수 있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협력하여 농작한 수확물에 대한 감사를 표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 개개인 혼자 노력으로 얻은 결과물이기보다 공동체의 협력과 노력의 결과로 얻은 곡식이기에 소제는 그 자체로 공동체의 연합과 협력, 즉 서로 하나됨이 중요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러한 의미에 따라 소제는 종종 공동체의 축제와 기쁨의 일부로 드러졌다. 수확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 함께 감사하는 제사는 모두가 함께 즐기고 기뻐하는 시간을 마련해 주었다. 이러한 축제는 공동체의 삶이 신앙을 중심으로 결속시키며 풍성케 하였다. 즉, 모든 개개인들의 거친 것들이 다 고운 가루처럼 깨어지고 성령으로 기름부음 받아 성령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 모든 성도가 기쁨으로 하나 되어 개인의 삶을 넘어 서로 격려하고 도우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공동의 책임과 의무를 함께 수행하게 된다.

3) 화목제

화목제는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음식을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으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제사이다. 화목제는 이름 그대로 우리의 화목을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로서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공동체 전체의 화목과 하나됨의 교제를 강조한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성도 간의 교제와 화목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를 위해 말씀하신다. 화목제는 제물로 희생된 동물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를 공동체가 함께 나누어 먹는 의식이다. 이를 통해 공동체 구성원들은 함께 음식을 나누며 일체감을 강화한다. 그래서 화목제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은 “이웃과의 나눔”이다. 소 한 마리는 결코 한 사람이 다 먹을 수 없다. 하루 이틀 사이에 다

먹기 위해서는 꼭 함께 나누어야만 했다. 이는 가진 자의 헌신과 나눔을 통해 덜 가진 자의 필요를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이다.

레위기 3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한다.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기름과 콩팥이 무엇인가? 기름과 콩팥은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말한다.⁵⁸ 가장 기름기가 많은 곳이 콩팥이다.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데 이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이다. 가장 귀한 것이기에 하나님의 것이라는 기름은 성경에서 성령을 의미한다. 그래서 기름부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이다. 우리는 기름과 콩팥을 통해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세를 가져야 함을 기억하고 실천해야 한다.

레위기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한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기름과 피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말씀이다. 모든 예식 과정을 거친 후, 음식을 나눈다. 앞서 말했듯 공동체의 나눔이 예배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제사가 화목제이다. 다시 말해 교회에서 함께 교제하며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이 화목제이다. 제사장은 제물의 가슴을 먹는다. 제사장이 가슴을 먹는 이유는 제사장이 입는 옷(에봇)의 가슴에 있는 흉패와 안장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먹는 것인데 흉패에는 열 두 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이 있다. 열 두 지파를 바라보고 더욱 더 공동체를 위해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물의 가슴을 먹는 것이다. 그렇게 성도는 자신들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이웃과 화목하고

⁵⁸ 최승목, 『성막, 하나님을 꿈꾸다』, 161.

화해에 이른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 예물을 나누는데 이는 성도의 교제가 예배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알려준다.

결론적으로 화목제에서 공동체성이 두드러지는 이유는 화목제가 공동체 구성원 전체의 하나됨, 화목, 감사, 나눔과 동시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대해 중점을 두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신앙 행위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함께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올바르게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시 모두가 함께 서로 나누기를 실천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준다.

4) 속죄제

속죄제는 제물에 안수하고 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는 것이다. 이러한 속죄제는 ‘하타트’라는 원어를 갖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죄로 막힌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고 회복하는 제사이다. 따라서 속죄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실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예배가 된다. 앞서 알아본 번제와 소제, 그리고 화목제는 모두 번제 단 위에서 불살라 태워 하나님께 올리는 제사이다. 그러나 네 번째 속죄제는 번제 단 위에서 불살라 태우지 않는다. 정확히는, 소의 몸은 번제 단에서 태우지만 나머지는 모두 진영 밖에서 태운다는 점이 앞선 세 가지 제사와는 다른 점이다.

레위기 4장 10~12절은 이렇게 말씀한다. “화목제 제물의 소에게서 떼어낸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에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지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진 밖에서 죽게 될 것을 예표하는

말씀이다. 예수님은 진 밖, 즉 성 밖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에 대한 말씀이다. 속죄제는 자신의 죄를 진 밖에 내다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의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그러므로 향기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이 아닌, 죄가 진 밖에서 버려지는 것에 초점을 둔다. 속죄는 죄를 고백하는 것인데 이러한 속죄제는 피를 제단의 바닥에 뿌림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는 의미를 갖게 된다. 내 죄로 인해 내가 죽어야 하는데 흠 없는 소가 우리 대신 희생되어진다. 흠 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서 우리 죄로 인해 우리가 죽을 것을 대신하여 희생제물이 되어, 진 밖에서 피를 흘리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주셨다. 이러한 속죄제의 의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성도를 비롯한 이웃들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이를 통해 속죄제는 공동체 내에서 갈등이 해결되고 서로 화합하며 평화를 도모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공동체가 함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며 지속적으로 평화의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정신이 속죄제에 깃들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속죄제는 하나님과 공동체의 온전한 회복을 통한 진정한 예배의 회복을 의미한다. 예배의 회복은 관계 회복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5) 속건제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이나 이웃의 물건을 침해하거나 손해를 끼친 잘못을 깨달았을 때, 그 허물을 씻어내기 위해 드리는 제사이다.⁵⁹ 하나님과 이웃에게 나의

⁵⁹ 한국기독교공보, “속건제.” <https://pckworld.com/article.php?aid=8212391578> [2024. 12. 28 취
중접속].

잘못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보상하는 의미가 담긴 제사이다. 이는 하나님의 것(성물)이나 이웃의 것에 해를 가했을 때 하나님께는 원래의 것에 1/5, 즉 20%를 더해 바치고, 이웃에게도 마찬가지로 원래의 것에 1/5을 더해 보상한 후 흠 없는 숫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보상의 의미를 가진 제사이지만 속건제는 결국 자신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책임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공동체 관계회복을 추구한다. 이것은 마태복음 5장 23~24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속건제 정신의 중요함이 드러난다. “(23)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24)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성물)과 이웃의 것을 두 개의 분류로 구분해서 이해하면 안 된다. 속건제를 통해 다른 사람의 것을 함부로 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여기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듯이, 다른 사람에게 잘못하는 행동은 곧 하나님께 잘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가족에게, 이웃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잘못된 일이 생각나거든 온전한 관계 회복을 통해 더 단단한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를 드려야 한다. 속건제는 우리가 함께 더불어 행복한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은혜의 제사이며 회복의 제사이다.

속건제를 통해 공동체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며 또한 상대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과정을 통해 연대감을 형성한다. 결국, 개인의 문제가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 공동체 전체의 회복을 일으킨다.

속건제와 속죄제를 구분하는 기준은 보상에 있다. 보상할 수 있는 죄는 속건제에 해당하지만, 이와 반대로 보상할 수 없는 죄는 속죄제로 드러진다. 1/5를

더해 바치게 하신 이유는 보상이 가능한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그러한 보상(배상)을 통해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하심이다. 1/5인 20%의 배상을 통해 우리는 죄에 대한 거부감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 마음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공동체에서 서로를 먼저 생각할 수 있게 하는 배려와 깊이 있는 마음을 불러일으킨다.

D. 초대교회 예배에 나타난 공동체성

초대교회 시대에 크리스찬은 신앙의 자유를 마음 편히 누릴 수 없었다. 사람은 심리적으로 믿음생활에 핍박과 박해가 있으면 함께 모이려 하지 않고 각자 숨어 지내기 마련이다. 당시 크리스찬의 뜻은 한 마디로 예수쟁이었다. 지금은 크리스찬의 뜻과 이미지는 거룩한 신앙인의 정체성이지만, 예수님 시대에 이 단어는 정 반대의 의미였다. 즉, 당시 크리스찬이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 지금의 예수쟁이라는 말처럼 비하하는 발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성도들은 그들의 스승인 예수님, 그 당시 말로 그들의 랍비인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그 분의 모든 것을 따라하며 살기 위해 노력했다. 당시 사회적 문화는 여러 랍비의 집단이 있었고 각 랍비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랍비의 모든 행동을 따라 하려 했다. 특히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자며 예수님의 삶 그 자체를 따르기 위해 노력하며 살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좀처럼 그들을 향한 핍박과 박해가 있는 신앙생활 여건은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았다. 초대교회 시대에 네로 황제(AD 54-68)를 시작으로 디오클레티안 황제(284-305)시대까지 정확히 313년 콘스탄트 황제에 의해 기독교가 로마 국교가 되기까지 초대교회는 계속된 핍박 속에 있었다.

왜 초대교회 때 핍박이 심했을까? 그 안에는 크리스찬을 박해하는 정치가들이 기독교의 공동체적 힘을 견제했기 때문이다. 트라얀 황제(98-117)는 기독교를 공식적이고 강압적으로 핍박하며 기독교인들에게 황제 숭배를 강요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늘 공동체로 모여 예배하는 모습에서 기독교의 힘을 느꼈기 때문이다. 황제는 늘 기독교인들이 모일 때마다 이들을 견제하며 자신의 힘과 권위에, 로마정부에 대항하려는 세력이라고 오해까지 했으니 말이다. 이때도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정말 좋지 않았다.

트라얀 황제는 크리스찬의 세력을 확인할 겸 그들이 사회적 여론의 소문대로 정말 그들의 삶이 부도덕하고 행실이 악한지 조사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소문대로 크리스찬이 악한 공동체라면 기독교를 더 거세게 탄압할 작정이었다.⁶⁰ 황제의 명을 받고 기독교인 실태조사를 했던 인물이 ‘트리니누스’ 인데, 그가 기독교인 실태조사를 마친 후 황제에게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보고를 했다. 첫째, 기독교인들은 소문과 달리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둘째, 그들은 소문과 달리 간음하지도 않았습니다. 셋째, 그들은 소문과 달리 재정문제가 깨끗했습니다. 이 세 가지 보고를 받은 트라얀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더 강력하게 탄압하려는 마음을 바꾸고 내심 감탄을 했다.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것은 예배를 향한 “경건”한 모임이었고, 그들은 예배하는 대로 경건한 공동체였던 것이다. 트라얀 황제가 견제하고 두려웠던 것은 실상 로마정부를 향한 반대세력 모임이 아닌, 기독교인들의 경건한 공동체 예배 모임이었던 것이다. 콘스탄트 황제 때인 313년 기독교가 로마 국교가 될 수 있었던 것 역시 기독교인들의 경건한 예배 모임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로마는

⁶⁰ 장학일, 『달라져야 한다』 (서울: 밴드목회연구원, 2001), 211.

말로 다할 수 없을 만큼 타락했다. 황제가 보기에 더이상 어떠한 변화가 없으면 곧 로마의 종말이 현실이겠거니 싶었다. 그러나 그때,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보니 그들은 모이면 예배하고 타락한 로마 시민들과 달리 그들은 서로 덕을 세우며 다른 삶을 살고 있음이 보였다. 로마 사람들 대부분이 성적으로 타락했고 돈 관계도 엉망이며 도덕적으로 바닥을 쳤지만, 그들에게 핍박받으며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핍박 속에서도 서로 모여 예배하고 덕을 세우며 하나 되어 어려움을 이겨내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음이 분명했다. 이를 통해 황제는 기독교가 이 나라 국교가 되면 도덕도, 재정도, 성 윤리도 모두 회복될 것을 확신했고, 결국 기독교는 국교가 되었다. 뭉치면 산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떻게 뭉치느냐이다. 서로 돕고 격려하며 모이면 예배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다. 그런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다. 그 힘은 상황을 초월한다. 목숨을 위협하는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초대교회는 세대를 거슬러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공동체를 지켜냈다. 교회의 시작이었던 초대교회의 공동체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초대교회처럼 건강하게 잘 모이는 공동체는 잘 흩어지는 모습이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하늘 승천하시고 10년 이내에 복음은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인 알렉산드리아와 안디옥까지 퍼졌다.⁶¹ 또한, 동시에 로마에까지 퍼졌다. 이때부터 로마에서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었다. 주를 위한 모임에는 분명히 힘이 있다. 로마 황제는 이 힘을 보았기 때문에 박해를 했다. 그리고 변함없는 이 힘 때문에 기독교가 국교가 되었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힘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그것은 사랑이다. 오늘날에도

⁶¹ 마이클 그린, 『초대교회의 전도』 김경진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8), 11.

빈부격차가 크지만, 당시에는 그 차이가 훨씬 더 심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상황이 달랐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따르면, 믿는 자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졌다고 한다.⁶² 누구도 자신의 것을 더 가지려 하거나 숨기지 않았고, 오히려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았다. 오죽하면 초대교회 시대에는 아내를 제외하고 모든 것을 나누고 베풀었다는 말이 있겠는가? 이런 초대교회의 힘은 사도행전 1장에 엄청난 부흥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난 성도 수는 120명인데, 바로 다음 장인 2장 14절을 보면 고작 1장 사이에 3천 명으로 부흥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놀라운 것은, 그 수가 3천이나 더해졌다는 것이다. “더해졌다”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강조하는 수동태이다. 즉, 건강한 예배 공동체의 모임은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일으킨다. 47절 역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말씀한다.

구체적으로 초대교회 공동체성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로, 초대교회는 새신자들이 교회 공동체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오늘날 교회의 새신자교육은 사실 초대교회 때 이미 존재했던 제도이다. 그 중 대표적인 인물이 바나바이다. 바나바는 새로 교회로 오는 이들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라는 사도행전 11장 23절 말씀으로 권면하며 그들의 교회 공동체로의 정착을 위해 크게 수고했던 인물이다.⁶³ 둘째로, 교제이다. 초대교회는 함께 음식을 먹는 공동체(행 2:46)였다. 한국어로 가족을 ‘식구’라 한다. 식구는 ‘먹을 식’, ‘입 구’로 밥을 같이 먹으면 식구이자 가족이라는 것이다. 초대교회는 함께 식사하는 공동체였다. 그러나 당시에는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⁶² Ibid., 27.

⁶³ Ibid., 44.

금지되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할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더러 왜 예수님이 저들과 함께 식사하느냐고 뭐라 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은 병든 이에게 의사가 필요한 법이라며 그리스도인은 누구와도 함께 밥을 먹고 교제하며 그들이 의사이신 예수님을 만나 고침받고 회복되어 온전한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셨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회적인 시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식사하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야 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알고 있었다. 새신자에게 식탁을 베풀고 가난한 이에게 먹을 것을 주며 식탁 공동체를 통해 믿음의 가족을 더 커지게 하는 데 집중했다. 초대교회 중 안디옥교회는 바로 이 놀라운 식탁을 최초로 시작했던 교회이다. 그래서 교회를 식탁 공동체라고도 말한다. 교회는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잘 먹는 곳이다. 영육의 양식을 통해 몸과 마음이 회복되어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한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1장과 2장 사이에 폭발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의 역사로 일어날 것이다.

셋째로, 그들은 함께 기도하는 데 힘썼다. 앞서 언급했듯이 초대교회는 음식을 베풀며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행 2:46) 오로지 모여 함께 기도하기에 힘썼다(행 2:42). 넷째로, 그들은 한 마음으로 전도하기에 힘썼다. 전도가 무엇인가? 좋은 소식을 이곳, 저곳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과 박해를 당하면서도 전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전도가 가져다주는 기쁨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는

초대교회가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전도했음을 알 수 있다.⁶⁴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모두가 전도에 힘썼다”는 것이다. 스테반 집사의 순교 이후 시작된 박해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두려워 다락방에 숨었지만 보통의 성도들은 사방으로 흩어졌다. 이 보통의 성도들은 앞서 언급했던 잘 모였다가 잘 흩어진 대표적인 예가 된다. 흩어진 모든 보통의 성도들이 한 것은 바로 전도이다. 보통의 모든 성도들은 흩어져서 우리를 위한 좋은 소식을 말로, 그리고 그들의 삶으로 기쁘게 전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가정이 건강한 공동체가 되었다. 지금의 말로 ‘가정예배’, ‘속회’, ‘목장’이 되겠다.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이 집에 모이는 장면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한다. 여기서 나오는 집은 헬라어 원어로 오이코스(Oikos)인데 오이코스라는 집의 뜻은 단순한 집의 의미를 넘어서 성전의 의미를 함께 지닌다. 즉, 가정교회 또는 가정 안에 있는 교회라고 해석된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주로 성전(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예배 드리는 곳)이나 회당(성전의 보조 역할)에서 모였다. 그리고 동시에 각 가정에서도 소그룹 모임을 많이 가졌다. 성도들의 집 역시 오이코스(Oikos)의 의미대로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예배 거처가 되었다는 의미이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견지 못하는 이를 만난 곳도 성전이었고(행 3:1~2), 두 사도들이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한 곳도 회당이였다. 초대교회 크리스찬의 힘이 당시 회당 중심으로 모이던 유대인들보다 강했던 것은 성도들의 ‘집’에서의 모임이다. 생각보다 가정에서의 모임이 갖는 힘이 강했다. 사도행전 17장 5절은 그들이 야손의 집에서 모였고, 18장 7절에서는 유스도의 집에서, 그리고

⁶⁴ Ibid., 153.

21장 8절에서는 빌립의 집에서 모였음을 알 수 있다.⁶⁵

⁶⁵ Ibid., 161.

제 IV 장

예배의 공동체성 회복이 일어난 역사

A. 예배의 회복을 위한 종교개혁

기독교 역사에서 종교개혁은 예배개혁이었고, 종교개혁을 통해 예배의 회복이 일어났다. 엄밀히 말하면 종교개혁을 통해 예배 공동체성이 회복됨으로써 교회가 원래의 모습을 회복한 것이다. 예배는 교회와 연결되고, 교회는 예배로 연결된다. 예배의 공동체가 교회이고, 교회는 예배 공동체들의 모임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예배 역사를 보면 많은 변화의 흐름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교회의 부패, 즉 예배의 부패에 따른 변화이다. 이것을 종교개혁이라 부른다. 종교개혁의 출발점은 “부패”이다. 이 부패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회와 예배를 통해 이루던 “상호교제”가 결여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짐을 말한다. 우리의 온전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해주시는 것이 예배의 핵심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이 멀어졌다는 것은 곧 예배의 변질을 의미한다. 초대교회 시대나 중세시대의 교인들은 성경책에 접근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성직자들의 입을 통한 말씀에 자신들의 신앙을 의지해야 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성직자는 무거운 사명감을 갖고 성경을 객관적으로 연구하고 객관적으로 이해해야 했으며 성경대로 경건한 삶을 살아야 했다. 성도들의 삶이 성직자의 입과 삶의 모습에 의해 좌지우지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트리거가 되었다. 성직자들이 성경을 이용하여 자신의 탐욕과 권력에 대한 욕심을

드러내며 종교가 부패하기 시작했다. 성경에 대해 무지한 성도들은 부패한 성직자들의 말을 분별할 능력이 없었다. 매 시대마다 이러한 상황은 비슷했고, 이렇게 부패한 종교에 대해 개혁의 목소리가 나왔다. 그 중 의미 있는 개혁운동 네 가지를 소개하려 한다. 처음 세 가지 개혁운동은 종교개혁시대보다 앞선 것으로 종교개혁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마지막 네 번째는 누구나 종교개혁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독일의 마틴루터 종교개혁이다.

첫째, 14세기 후반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데보티오 모데르나 Devotio Moderna” 이다. 새로운 경건이라는 의미를 갖는 이 신앙회복경건운동은 각 개인마다 내면의 경건을 주장하며 이러한 개인 내면의 회복을 통해 온전한 공동체적인 삶을 추구하였다. 마치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려는 이 운동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이었다. 특히 이 경건운동의 대표적 인물로는 1400년 초기에 활동했던 토마스 아켄피스(Thomas a Kempis)가 있다. 그는 어린 시절에 신앙의 회복을 위한 경건운동에 많은 영향을 받으며 성장했다. 이러한 영향 아래 나온 것이 바로 그의 저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이다. 이 책은 중세 경건서적으로 오늘날까지도 저명한 작품으로 여겨진다.

둘째로, 존 위클리프 John Wiclif(1328-1384)의 개혁운동이다. 영국 출신인 존 위클리프는 영국 신학자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귀한 일을 했다. 성경이 라틴어로만 존재했기에 일반 신자들은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으며 성경을 소유하기도 어려운 일반 대중들로 하여금 성경을 직접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그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이 교황이나 성직자들만의 것이 아니라 교회의 소유 즉, 교회를 이루는 예배 공동체 모두의

소유라 여겼기 때문이다.⁶⁶ 이것이 교회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실제로 그는 성경 영어 번역을 시작했지만, 그의 선한 영향을 받은 위클리프 추종자들의 공동체가 형성되어 위클리프의 죽음 이후에 그들이 성경번역을 완성하였다. 존 위클리프는 당시 카톨릭의 만성적인 부패로부터 건강한 예배공동체를 회복해야하기 때문에 교황 및 교황청을 대적하여 개혁의 운동을 펼쳤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성경과 하나님의 법이었다. 그는 성경이 유일한 삶의 기준이 됨을 말하며,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교황에 의해 결정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였고, 교황의 결정이 성경말씀에 적합하지 않다면 무가치한 주장이라 하며 교황제도를 비판하였다. 이것이 존 위클리프가 종교개혁의 선구자이자 종교개혁 시대를 위한 기초를 마련했다고 평가받는 이유이다.

셋째, 얀 후스 Jan Hus(1372-1415)의 개혁운동이다. 체코 출신인 얀 후스는 앞선 존 위클리프의 저서를 읽고 이를 자기의 사상으로 받아들였다. 존 위클리프 사상에 영향을 받은 얀 후스 역시 성경이 신앙생활의 유일한 기준임을 주장했고 교황청의 전통과 권력보다 성경 말씀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성경에 순종하지 않는 교황에게 순종을 해야 하는지 의문을 품었고 교황들이 교회의 복리를 위하지 않고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 성직활동을 할 때 과연 교황의 권위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⁶⁷ 이에 상당히 불편한 심기를 가졌던 교황청은 당시 전쟁을 합리화하는 입장을 취했으며, 또 면죄부를 판매하는 했는데 프라하대학교의 총장까지 역임했던 얀 후스는 이에 대해 교황청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반대하였다.

⁶⁶ 유스토 L 곤잘레스, 『중세교회사』 서영일 역 (서울: 은성, 1995), 205.

⁶⁷ Ibid., 209.

결국 그는 설교권을 박탈당하고 목사직분 역시 빼앗겼으며 거기에 덧붙여 교황은 안 후스에게 사형선고를 내렸다. 결국 안 후스는 화형에 처해 끔찍하게 순교하게 되지만 그의 사상은 체코 전역에 퍼져 체코의 개혁운동인 후스파 운동의 기초가 되는 밑알이 되었다. 안 후스에 의해 체코 전역에서 일어난 교회의 개혁은 성경 중심으로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었는데 그가 자신의 생명과 맞바꾼 개혁은 곧 공동체 회복으로 이어졌다. 안 후스는 성경에 근거하여 모든 성도가 평등함을 알렸고, 이 주장은 종교를 넘어 사회 계층 전반에 영향을 주었다. 또한, 안 후스의 순교 이후, 후스파는 성경을 체코어로 번역하여 일반 대중들도 성경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이는 일반 대중들로 하여금 문맹률을 낮추는 데 기여하였다. 마치 한국 근대사에 등장하는 미국 선교사들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난한 이든지 누구든지 소유할 수 있게 하여 성경을 통해 문맹률을 낮추는데 기여했던 것처럼 말이다. 이렇게 교회를 넘어서 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끼친 공동체 회복은 후대에 체코 정치와 사회 구조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넷째, 종교개혁을 주도한 마틴 루터 Martin Luther(1483-1546)의 종교개혁이다. 독일의 종교개혁가인 루터는 앞선 두 인물처럼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여 일반 대중들이 성경을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많은 사람들이 루터에 의해 번역된 성경을 읽음으로써 성경에 대해 바른 지식과 이해를 갖게 되면서 온전한 공동체가 형성되었다. 당시 카톨릭 사회에서는 예배의 정체성인 ‘나’와 ‘하나님’ 간의 상호교제가 이루어지리란 불가능에 가까웠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카톨릭이 가로 막았기 때문이다. 루터는 이에 대해 “만인제사장 universal priesthood of all believers”을 주장하면서 교회가 일반 성도들의 성경해석 권리를 막을 수 없다는 입장으로 성직자든 성도든 모두가 하나님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직접 하나님과 상호 교제를 이룰 수 있음을 주장했다. 당시 성직자들은 부패한 권력으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을 미혹하여 개인의 욕심을 채우며 살았다. 그들은 성경을 이용해 사람들을 속인 것이다. 만인제사장에 대해 루터는 성경의 권위를 일반 대중들에게 허용하지 않고 성경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카톨릭을 비판하였고 성경은 성직자나 일반 성도들에게 차별이 없음을 말하였다. 이것이 루터의 만인제사장이며 성경과 하나님 앞에 모두가 동등하지만 성직자로서의 제사장직과 성도로서의 만인제사장에는 직분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 하였다.

어찌되었든 루터는 성직자 역시 한 명의 성도임을 강조하였던 것이고 이는 카톨릭이 주장하던 ‘교황무오설’에 대한 정면 비판이었다. 루터의 이러한 주장은 당시에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게 되었고, 루터의 신앙개혁은 예배의 공동체성이 바로 서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또한 루터는 성경에서 구원의 해답을 발견했기 때문에⁶⁸ 종교개혁의 선구자들과 마찬가지로 성경이 신앙생활의 유일한 기준임을 주장하면서, 오직 성경(Sola Scriptura), 오직 은혜(Sola Gratia), 오직 믿음(Sola Fide)의 원칙을 강조했다. 이는 예배의 공동체성을 가로막고 자신들의 권력과 부를 축적하기 위한 카톨릭과 교황의 방향과 정 반대되는 주장이었다.

당시 카톨릭은 면죄부를 판매했다. 당시 ryghikd 율리우스 2세(1503-1513)는 로마에 베드로성당의 신축 건설을 계획했는데, 신축 공사를 위한 재정이 막대했기 때문에 그 재정 조달을 위해 1506년 면죄부를 발행하기 시작했다.⁶⁹ 루터는 이에

⁶⁸ Ibid., 50.

⁶⁹ 칼 하인츠 츠어 쾰렌, 『종교개혁과 반종교개혁』 정병식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2). 68.

대해 강력히 비판하였는데 면죄부는 단순히 새로운 성당 건축에 따른 카톨릭의 부의 축적을 위해 이용되어진 것으로 이러한 내막을 모르는 성도들, 즉 성경을 소유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면죄부를 사면 죄가 용서받는다 카톨릭 종교 지도자들의 말에 따라 면죄부를 사게 되었다. 카톨릭이 말한 면죄부는 사람들이 돈으로 이것을 산다면 연옥으로부터 해방되고 받을 벌이 줄어들며 죄가 용서받는다 것이다.⁷⁰

면죄부를 사기 위해 동전을 지불하고 그 동전이 떨어지는 “뽕그랑” 소리가

“죄사함” 받는 소리라고 일컬어졌다. 루터는 이 면죄부를 아주 강력하게 비판했다. 면죄부의 판매 목적이 부패에 있을 뿐만 아니라 면죄부의 이용 목적 또한 하나님 앞에 부정하기 때문이다. 거짓되고 잘못된 신앙관으로 하나님과 성도의 거리가 멀어지게 된 것이다. 루터는 그 당시의 교회법을 언급하며 주장하였는데,

‘죄사함’은 살아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카톨릭이 연옥을 만들어서 죽어버린 자들에게도 ‘죄사함’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내용은 루터가 작성한 95개조 반박문 중 8번째에 기록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미 죽어버린 이들의 또 다른 기회로 연옥을 내세우는 카톨릭의 태도는 무지하고 잘못된 것임을 10번째 기록을 통해 다시 한번 반박하였다.⁷¹ 천국과 지옥의 판단은 면죄부를 사는 행동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기에 루터 역시 교황이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생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이들의 죄를 용서해줄 수 있겠냐고 반문한 것이다. 사실 루터 역시 카톨릭 영향 아래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제였던 터라 연옥 사상에 있어서는 크게 부정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카톨릭은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 있음을 주장한다. 천국은 갈 수 없고

⁷⁰ 롤란드 베인튼, 『16세기 종교개혁』 홍치모 역 (파주: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0), 41.

⁷¹ 주도홍, 『개혁교회사』 (서울: 솔로몬, 1998), 111.

지옥에는 보낼 수 없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연옥이라는 것이다. 당연히 이 주장은 터무니없고 루터 이후로 점차 연옥사상에 대한 성경적 구원관과 상반됨에 따라 개혁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 어쨌든 루터로부터 연옥사상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음은 틀림없다. 루터의 95개조 중 21조에 루터는 주장하기를, “사람들이 교황의 면죄를 받으면 모든 벌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하는 면죄부 설교자들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 하였다.⁷² 사람들의 죄에 대한 심판은 연옥이라는 또 하나의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었을 때의 삶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와 같이, 카톨릭의 연옥사상과 더불어 면죄부 판매는 루터의 95개조 반박문 발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또한, 루터는 당시 카톨릭의 미사를 하나의 죄악이라고 진단했다. 중세시대의 성찬은 성직자 외에 누구도 참여할 수 없었다. 잘못된 이해로 변질된 성찬으로 인해 성찬은 점차 신비롭고 미신적으로 이해되기 시작했다. 루터의 이런 모든 노력은 기독교를 하나님 말씀대로 회복시키기 위해 중세적 패턴을 파괴하여 세계를 기독교화 하는데 아주 중요한 개혁이었다.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로 로마카톨릭의 부정과 부패를 알게 된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회복을 주장하게 되었다. 인쇄술의 발달은 부패로 둘러싸인 성직자들의 권한을 사람들에게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고, 성경의 보급으로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개혁의 바람에 힘입어 많은 개신교 종파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B. 예배회복운동

⁷² Ibid., 112.

역사적으로 그리고 현 시대에도 교회에 ‘편가르기’ 같은 작은 분열이 일어난다면 그 작은 불협화음에 교회는 흔들리고 그 예배 공동체를 통한 예배에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은혜를 체험하기란 쉽지 않다.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카톨릭은 무섭게 비상하는 개신교에 대항하여 전쟁을 벌이며 더 큰 세력으로 무장하기 위해 정치와 연결된다. 대표적인 예가 30년 전쟁이다. 이러한 일들 때문에 카톨릭과 개신교는 모두 다시금 부패하기 시작하였다. 부패되었다는 것은 예배가 부패되었음을 말한다. 교회에서 어느 곳이 부패되었든 결국 예배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이다. 교회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다. 예배가 훼손되고 부패되었으니 이 부패에 직면하여 예배 회복 운동이 일어났다. 그것은 바로 “경건주의”이다. 경건주의는 지금까지도 교회 예배 회복에 있어서 중요한 교훈이 되는 키포인트이다. 본 장에서는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발생한 역사적인 세 가지 카톨릭과 개신교의 세력 다툼에 대한 부패를 설명한 이후, 예배 회복운동으로 일어난 경건주의, 그리고 감리교회를 시작한 존 웨슬리를 통한 회복에 대해 알아보겠다.

첫째로, 카톨릭과 개신교 사이에서 각 교회는 서로 세력을 잡기 위해 전쟁을 벌였다. 이 시기에 프랑스 앙리 4세에 의해 반포된 낭트칙령 Edict of Nantes(1598), 그리고 프랑스 루이 14세에 의해 반포된 퐁텐블로칙령 Edict of Fontainebleau(1685)을 알아보자. 낭트칙령은 앙리 4세가 선포한 칙령으로, 프랑스에서 카톨릭뿐 아니라 개신교에게도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개신교를 위한 이 칙령은 후에 퐁텐블로 칙령에 의해 폐지되며 개신교의 종교적 자유가 박탈되었고 개신교는 다시 카톨릭의 탄압과 핍박을 받게 되었다. 이 퐁텐블로 칙령은 기존의 낭트칙령을 무효화함으로 개신교를 탄압하고 억압하기 위해 프랑스 왕인 루이 14세를 압박해 반포한 것이다. 사실, 같은 프랑스 내에서 이미 첫

번째 폰텐블로 칙령이 앞선 1540년 6월 1일 프란시스 1세에 의해(by the French King Francis I)에 의해 반포되었다. 그것 역시 카톨릭이 개신교를 향하여 이단이라고 표현하며 고문, 재산압수, 죽음 등 개신교도들을 박해하기 위한 최초의 개신교 핍박 칙령이었다.

둘째, 카펠전쟁 Battle of Kappel이다. 1529년과 1531년 스위스의 카펠 Kappel에서 일어난 종교전쟁이다. 1523년 이후, 스위스 종교개혁가인 쾰빙글리에 의해 스위스 취리히를 중심으로 전개된 종교운동 때문에 개신교와 카톨릭이 대립하게 되므로 1529년 5월 카펠에서 1차 카펠전쟁이 벌어졌다. 당시 개신교가 카톨릭보다 우세하여 개신교의 신앙 자유를 인정하는 “카펠화약”이 맺어졌다. 그러나 1531년 카톨릭은 오스트리아 정부의 지원을 받아 두 번째 카펠전투를 일으켰고 그들은 스위스 종교개혁가 쾰빙글리를 붙잡아 카톨릭을 다시 받아들이도록 강요하였으나 쾰빙글리는 거부하였다. 이에 카톨릭교회는 쾰빙글리의 몸을 4등분하여 불에 태워 잔인하게 죽였다. 그렇게 쾰빙글리는 순교하게 되고 많은 개신교도들이 이 전투에서 사망함으로 개신교는 다시 탄압과 죽음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셋째, 영국 왕 헨리 8세(1491-1547)와 딸 메리(1516-1558)에 의해 일어난 개신교와 카톨릭의 부패이다. 당시 교황은 종교뿐 아니라 정치에도 굉장한 권력을 가진 중요한 인물이었다. 헨리 8세는 첫 번째 아내 캐서린과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싶어서 교황에게 이혼을 요청했다. 하지만 교황은 헨리의 그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분노한 헨리 8세는 수장령(1534)을 선포하며 교황청과의 관계를 단절했고 정치적인 안정과 왕권 강화를 위해 개신교에 힘을 실어주며 카톨릭을 탄압하였다. 개신교는 이 때를 기회로 정치적인 힘을 입게 되었다. 시간이 지난 후, 헨리 8세의 딸인 메리가 영국의 여왕이 되자 상황이 변했다. 그녀는 영국을 다시 카톨릭 국가로

되돌리기 위해 노력했다. 이를 위해 메리는 개신교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최소 280명 이상의 개신교 신자들을 불에 태워 죽였다. 이런 종교정책 때문에 메리는 ‘피의 메리’라 불리게 되었다. 그렇게 영국은 메리에 의해 카톨릭이 정치에 힘입어 세력을 확장하며 개신교를 박해, 핍박, 탄압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이러한 일이 유럽 전역에서 반복되며 모든 교회가 부패하게 되자, 교회의 회복을 위한 경건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넷째, 1618-1648년, 독일에서 일어난 30년 전쟁이다.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유럽에서는 개신교와 카톨릭의 대립이 극심해졌다. 1576년 신성로마제국에 루돌프가 황제로 즉위하면서 개신교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였는데 그 다음 카톨릭 옹호자인 페르디난드가 황제의 자리에 오르자 개신교를 박해하기 시작했다. 페르디난드 황제의 개신교탄압에 힘입어 1612년 마티아 황제가 되면서 카톨릭신자들이 개신교신자들을 탄압하고 박해하기 시작했다. 이 탄압과 박해가 결국 전쟁으로 번지게 된 원인이다. 결국 개신교와 카톨릭의 신앙교리 문제, 다시 말해 신교와 구교의 신앙교리 문제가 크게 번져서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 여러 국가들이 전쟁에 휩싸이게 되었다. 이 전쟁에서 개신교 목회자들 620명이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했다.⁷³ 그러나 오늘날 카톨릭은 카톨릭대로, 개신교는 개신교대로의 종교가 자유할 수 있었던 것은 30년 전쟁이 기점이 된 것이다. 30년 전쟁은 종교개혁에 힘입어 개신교는 예배가 타락한 카톨릭에 반하여 예배의 갱신을 목숨걸고 주장하는 전쟁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스페인과 프랑스의 경우, 단순히 예배회복의 개념과는 관계없이, 그리고 종교적인 이유와는 관계없이 오로지 정치적 이득을 목적으로 전쟁에 참여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30년 전쟁은 종교개혁과

⁷³ 심창섭, 박상봉, 『교회사 가이드』 (서울: 아가페문화사, 1994), 246.

종교전쟁의 마지막 단추라 평가되듯이, 30년 전쟁 이후에 카톨릭과 개신교는 양 쪽 모두 신앙의 자유가 인정되어 나쁜 종교자유를 인정받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16세기 후반을 시작으로 유럽 전역에서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났다. 앞서 30년 전쟁이 끝날 무렵부터 독일교회는 안타깝게도 정통을 주장하며 경건생활에 무관심해지기 시작했다. 교회의 영적 침체현상이 지속되면서 교회에서 설교의 은혜가 없고 예배를 통해 예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⁷⁴ 이때, 다시 잃어버린 경건을 되찾자는 경건운동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중 대표적인 인물이 독일 출신의 필립 제이콥 슈페너 Philip Jacob Spener(1635-1705)이다. 17세기가 시작되면서 독일을 비롯하여 영국, 스페인 등 전 유럽국가는 교회의 모든 부분을 장악하여 지배하고 있었다.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게 되면서 교회의 성직자들 역시 국가의 권한 아래 있게 되었고 교회가 국가에 귀속되면서 사회에 만연했던 계급주의가 교회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사회에 만연하던 계급 차별이 교회 예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온 성도는 교회의 몸이 되어 성도 모두는 하나의 동등한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했지만, 예배에서 계급 차별이 나타나면서 예배는 변질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부패된 것이 하나님 말씀이었다. 말씀 중심으로 모여야 하는 교회에 말씀이 부패되면 영적으로 살 수가 없기에 그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슈페너가 보기에, 말씀까지 부패되다 보니 변질된 목회자는 본인이 전하는 설교의 가르침과 교훈대로 살지 않는 모습들이 보였다.

그리하여 이러한 현실에 개탄한 슈페너는 “경건의 모임”(Collegia Pietatis)을 시작했다. 슈페너는 교회에 갱신이 필요한데 그 갱신은 진실하고 경건한

⁷⁴ Ibid., 279.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으로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한, 그는 부패한 성직자들을 향해 회개를 촉구하였고, 성직자는 그 회개를 통하여 경건한 성직자로 회복될 것을 주장했다. 확실히 그의 신학은 실천적이었다. 슈페너의 경건운동은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다. 감리교 운동을 시작했던 존 웨슬리 역시, 슈페너의 견해를 보다 발전시킨 인물로 평가된다. 현대 교회의 ‘속회’, ‘목장’은 웨슬리에 의해 시작된 것으로, 이는 웨슬리가 슈페너의 경건 모임으로부터 영감을 받았기 때문이다. 두 인물 모두 신앙의 실천과 개인의 경건 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이는 혼자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경건한 예배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슈페너가 경건의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처럼 교회의 부패는 사회와 연관된 경우가 많다. 사회의 억압과 관리/감독 아래 교회 성직자들은 성직자이기보다 부패한 공무원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교회는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했지만 도리어 사회의 좋지 않은 문화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다. 슈페너의 경건주의는 이렇게 부패를 직면한 교회에 많은 교훈을 시사하였다. 그는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경건의 움직임이 나비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기대하였다. 아래에 슈페너의 각오를 그의 저서 ‘경건의 열망’에서 발췌하였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뜻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소 고통을 당해야만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러한 시험에 처하게 될 것을 각오한 만큼 우리는 이를 우리의 일이 주님을 기쁘게 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로 생각합시다. 그리고 이러한 일로 인해 약해지지 말고 우리의 열심을 중단하지 맙시다. 저들의 교화를 위해 행해진 것을 더 한층 기꺼이 받아들이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특별히 우리 자신을 헌신함으로 시작합시다. 만일 자신의 회중 가운데서 모든 성직자가 다른 사람들보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꼴을 먹인다면, 저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점점 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또한 현재는 잃어버린 듯한 사람들을 끌어들이 그들 역시도 중국에는 교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모든 제안들은 아주 제한적으로 먼저 온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저들의 교화에 필요한 모든 것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일단 이것이 성취되고 기초가 마련되기만 하면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준엄한 권징이 보다 많은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이 임무를 우리가 완수하기까지 모든 소망을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가 즉시 바라는 성공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놓지 맙시다. 사람에게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가능하기 때문입니다.⁷⁵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10년 만에 교회가 다시 부패되었다는 웃기고도 슬픈 이야기도 있다. 이 말은 사람은 언제나 완전할 수 없고 하나님 힘을 의지하지 않는 한, 살아 있는 말씀의 능력 없이는 결코 온전한 회복이란 없음을 의미한다. 지금도 교회는 여전히 회복이 필요하다. 이 회복은 예배에서부터 시작된다. 신앙도 예배에서 시작되며, 말씀의 능력도 예배를 통해 일어난다. 성전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47장을 통해 말씀하셨는데, 이 생수의 강물은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이다. 말씀이 성전을 통해 선포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를 통해 언제나 회복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경건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받은 중요한 인물은 존 웨슬리(John Wesley, 1703. 6. 17-1793 3. 2))이다. 그는 감리교회를 시작한 목사님이다. 다시 말하면 경건주의가 감리교회에 큰 영향을 주었고, 감리교회는 신앙에 있어서 경건주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이다.

감리교회의 회복 운동에 대한 중요한 두 가지 주제를 알아보자. 감리교회가 말하는 감리교 신학의 두 가지 중요한 회복 주제는 ‘성화’와 ‘완전’이다.

⁷⁵ 필립 제이콥 슈페너, 『경건한 열망』 모수환 역 (파주: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14), 46.

감리교회라는 새로운 예배의 회복을 시작했던 존 웨슬리는 이러한 날마다의 회복을 성화(Sanctification)라고 말했다. 성화는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으로,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거룩해져서 완전(Perfection)에 이르는 과정이다. 즉, 완전에 이르는 과정의 순간들이 성화이다. ‘완전’이라고 해서 죄 없는 100% 예수님과 동일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존 웨슬리와 감리교 신학’의 저자는 이렇게 말했다. “웨슬리에게 ‘완전’은 우리의 마음과 상황을 지배하는 거룩한 사랑이다. 이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⁷⁶ 그렇다. 우리가 완전한 상태가 된다는 것은 흠과 죄가 없다는 교만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나와 이웃의 사랑의 교제가 상호 이루어지는 것이 존 웨슬리가 말하는 완전의 상태이다. 이것이 감리교회가 말하는 회복의 신앙이다.

존 웨슬리도 완전에 관한 자신의 설교에서 완전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뿐 아니라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된 마음과 몸을 갖고, 그렇게 생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즉, 우리가 회복해야 할 아래의 삼각형 그림을 완벽하게 이루는 상태를 이룬 삶이다. 이렇게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이웃, 나와 이웃의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되는 것은 예배를 통해 가능한 일인데, 이것이 회복되고 이루어진다면 존 웨슬리는 그러한 사람을 ‘최후의 의인’이라고 말한다. 최후의 의인은 최후 심판을 받고 나서 의롭다 인정받게 되는 자를 일컫는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서 정말 삼각형의 그림을 예배를 통해 아름답게 회복하여 이루고 살았는지,

⁷⁶ 김영선, 『존 웨슬리와 감리교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248.

그렇게 진정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었는지에 달려 있다.



우리는 앞서 종교개혁이 카톨릭의 부패에 따른, 즉 예배의 부패에 따른 예배 회복 운동이었음을 알게 되었는데, 존 웨슬리의 감리교 신학 역시 카톨릭의 구원사상과 상충하여 존 웨슬리의 신학을 통해 카톨릭의 구원사상을 보면, 카톨릭에서 ‘성화’와 ‘완전’이 이루어지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이해된다. 구원관은 하나님과 나와 의 관계 회복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개념이 카톨릭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기란 어렵다는 것이다. 이 관계회복은 또한 예배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데 카톨릭에서는 처음부터 관계회복에 대한 이해 자체가 잘못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예배 회복 역시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이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었고 종교개혁가 마틴루터의 영향을 받은 존 웨슬리 역시 완전에 이르는 삶을 강조하며 예배 회복을 주장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카톨릭이

말하는 구원관이 어떠한가? 구원관이라는 첫 단추가 얼마나 잘못 끼워져 있었기에 다음 단추인 예배회복까지 어려워져 개혁이 일어났던 것인가? 아래는 이에 대한 좋은 답이 될 것으로 카톨릭이 주장하는 연옥사상에 대하여 김영선 교수가 저술한 존 웨슬리와 감리교 신학에 나온 내용이다.

웨슬리는 사후에 악한 사람이 정결케 되어서 드디어 구원을 받게 된다는 설을 부정한다. 죽는 순간에 모든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 생명이 끝난 후에는 자기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웨슬리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몸이 완전히 변화하여 영의 몸으로 변화된다고 믿는다. 모든 사람의 부활은 그리스도 재림 후에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역사의 급격한 변화가 수반된다. 모든 사람의 부활과 최후의 심판 후에 모든 존재자들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신다. 최후의 의인으로서의 완전자는 이 심판자와 함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⁷⁷

현대시대 교회의 부패는 이전과 다르지 않다. 교회가 복음이 기준이 되는 예배에 집중하기보다 그 이외의 것들에 관심을 두는 많은 현대 교회들은 겉모습은 좋아 보여도 이미 본질을 잃었다. 교회가 본질을 잃는 순간 교회의 힘이 되는 예배 공동체에 균열이 발생한다. 예전과 시대가 달라졌지만, 그 부패의 틀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다시 한번, 경건의 운동이 필요하다.

⁷⁷ Ibid., 252.

제 V 장

미래 예배 공동체성에 대한 방향

A. 변경예배를 통한 온라인 예배의 활용과 공동체성 회복

회복은 개혁을 통해 이루어진다. 종교개혁을 통한 회복, 그 이후에 경건운동을 위한 회복이 있었다면 현대에도 회복이 필요한데, 현대에는 변경예배가 참 중요한 모델이 될 것이다. 그것을 알아보기에 앞서 현대교회에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실제사례를 알아보자. 나는 종교개혁 500주년 맞기로 분주하던 2015년에 개혁의 중심지였던 독일을 기점으로 체코, 스위스, 오스트리아, 프랑스를 다녀왔다. 내가 그 현장에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느낀 것은 500년 전에 있었던 종교개혁의 정신이 지금 다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었다. 현대교회의 개혁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2010년대부터 개혁의 홍수가 이루어 졌다. 예를 들어, 공적 영성의 부진, 우상숭배, 이분법적인 사고(교회와 사회의 분리), 이성 경시 현상, 승리주의 등의 문제에서 말이다. 특히, 이 승리주의는 한국교회가 20세기 후반 교회성장에 힘입어 주류교회로 그리고 한국사회 내에 주류 종교세력으로 자리 잡으면서 자기 정체성에 대한 혼란에서 비롯된 것이다.⁷⁸ 새 시대, 새 교회 책에서 특별히 주장하는 현대 한국교회의 개혁(변화) 촉구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⁷⁸ 장홍길, 홍인중, 『새 시대, 새 교회』(서울: 한지터, 2018), 117.

<<한국교회, 개혁의 길을 묻다: 새로운 한국교회를 위한 20가지 핵심과제>>는 근본 정신 회복하기, 교회문화直し하기, 구조 개혁 시도하기, 참여 방식 점검하기 등의 4개 분야로 나누면서, 첫 번째 분야에 대해서는 신학적 빈곤, 반지성주의, 빈곤한 설교 등을, 두 번째 분야에 대해서는 구약적 사고방식과 의례, 교회 안의 맘몬, 게토화된 교회 언어 등을, 세 번째 분야에 대해서는 사제주의, 납세, 교단과 총회 등을, 마지막 네 번째 분야에 대해서는 공적신앙, 공격적 선교, 남북분단 등을 논하였다. <<이슈 & 미래>>는 기독교의 공공성과 공공정책, 기독교와 사회문제, 기독교와 생명윤리, 기독교의 선교전략, 교회와 사역, 교육과 양육, 기독교와 경제, 한국 교회의 연합운동, 통일운동, 미디어와 문화, 미래전략 등 총 11개 분야에서 한국교회를 해부하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했다.⁷⁹

2010년 대 이 당시 책들만 해도 교회개혁의 관점에서 올바른 교회 존재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교회는 예배공동체를 넘어 사회에 빛을 비추고 소금의 역할을 한다. 예배가 거룩하게 본연의 성경적 의미로 회복된다면 이는 예배의 개혁을 넘어 자연스레 사회개혁, 즉 세상에 대한 교회의 태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래서 예배의 온전한 개혁이 교회를 위해, 그리고 사회를 위해서 필수적이다.

현대문명은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이 급변하는 시대에 살아남는 사람은 그 문명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사람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다.⁸⁰ 이것은 교회가 수용해야 할 중요한 자세이다. 다만, 복음보다 기술에 더 의존할 수는 없다. 이것이 교회가 문명과 기술의 발전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 취해야 할 태도이다.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것은, 자동차 운전자가 자율 주행 기능을 지나치게 신뢰해서 벌어지는 고속도로 요금소에서의 사고, 큰 커브길에서의 사고, 그리고

⁷⁹ Ibid., 118.

⁸⁰ 장홍길, 홍인중, 『급변하는 과학기술 사회와 교회』 (서울: 한지터, 2017), 29.

갑자기 생겨난 정체 현상에 자동차가 대처하지 못한 채 일어나는 사고 등이다. 이는 자율 주행이라는 발전된 기술을 사용하는 운전자가 기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태도에서 벌어진 사고다. 실제 사례로,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고속도로에서 ACC 이용(추정 포함)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모두 19건으로 1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고 국민일보는 보도했다.⁸¹

교회는 급변하는 엄청난 기술의 편리성을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여 누구보다도 복음 전파의 효율성을 위해 잘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10년 전에 잘 활용되었다고 하여 지금도 그것을 활용하느라 더 유용하고 오히려 더 잘 활용될 수 있는 방법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런 점에서, 교회도 늘 새롭게 변화해야 한다. 그러나 예배의 본질(복음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은 변할 수 없다. 이것이 문명과 기술 발전을 수용하는 교회의 태도이다. 수많은 세월이 흘러도 학교 수업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대면수업이다. 온라인 수업, 줌미팅 등 다양한 수단이 있지만 결국 대면수업이 주가 되고 다른 것들은 보조수단일 뿐이다. 대면수업을 통한 학습능력향상과 사회성교육, 인성교육을 비롯한 모든 교육과정을 온라인 수업이 따라갈 수가 없다. 사람은 서로 기대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이다. 사람은 결코 혼자서는 살 수 없는 공동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교회는 건강한 예배의 변화를 위해 영적 분별을 해야 한다. 어떤 것을 변화시켜도 되는지, 어떤 것을 변화시키면 안 되는지, 또는 어떤 것을 예배의 부흥을 위한 온전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지 등의 분별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건강한 예배의 변화를 일으킨 모델은 있을까? 이를 위해 한국 교회에

⁸¹ 국민일보, “시사,”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0358465> [2025. 1. 3 최종접속].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미국교회의 예를 보자. 한국교회의 현재 예배모습은 미국교회의 19세기 변경예배(Frontier Worship) 모습을 통해 영향을 받았다. 미국의 변경예배라 함은 미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예배의 본질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것들의 변화를 통해 엄청난 부흥을 이룩했던 시기의 예배를 말한다. 한국 교회가 미국의 변경예배에 큰 영향을 받은 것은 19세기 한국에 온 많은 미국 선교사들이 미국에서 변경예배를 경험하고 건너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체로 한국 교회는 미국의 변경예배와 거의 같은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변경예배를 경험한 미국 선교사들이 그 예배 형식을 한국에 전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의 예배형식과 미국 교회의 예배 형식에 많은 유사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변경예배가 건강한 예배의 변화를 일으킨 모델이라고 100% 확신을 갖고 이야기할 수는 없으나 이 역사적 사실을 통해 앞으로 미래 예배가 보다 더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제시한다.

변경예배(Frontier Worship)는 예배의 변화를 의미한다. 시대, 상황, 장소, 대상에 따른 특성에 맞추어 예배가 변경되는 것이다. 지금도 교회는 계속해서 변하고 있고 변해야 한다. 건강한 교회는 예배의 본질을 제외하고 많은 것들을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여전히 새롭고 독특한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변경예배는 왜 생긴 것일까? 그것은 예배에 대한 실천적인 문제에 대한 응답으로 시작되었다.⁸² 그리고 이것의 주된 목적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

변경예배의 기원은 18세기 대각성운동을 시작으로 19세기에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의 서부개척시대와 관련이 있다. 19세기에 미국인들이 서부로 대 이동을 하면서, 미국 개신교는 서부에 새로 유입되는 사람들을 위한 전도가 매우

⁸² 제임스 F 화이트, 『개신교예배』 김석한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9), 296.

중요했다. 특히 1800년부터 평소 교회에 다니지 않던 사람들을 위한 사역은 새롭고 독특한 예배로 발전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너무 전통에 얽매이지 않는 실용주의이다.⁸³ 이것은 온전히 새로운 신자들이 기존 교회의 예배공동체에 잘 융합되도록 하기 위한 실용적인 변화였다. 이렇게 말하면 예배의 권위가 떨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예배와 예배공동체의 경건도 매우 능동적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는 점은 주목할만하다. 특히, 일반 성도들의 참여가 거의 불가능했던 과거 전통 예배에서 벗어나 변경예배를 시작으로 평신도들도 예배 기도자가 되는 등 일반성도가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게 되었다. 비로소 모두가 함께 하는 예배공동체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변경예배를 통한 적극적인 예배경건운동이 사회에도 긍정적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변경예배에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급속도로 증가하는 서부지역 인구에 비해 그들을 목양하며 비신자들을 전도할 수 있는 목회자 수가 턱없이 부족했다. 그에 반해 개신교 목사가 되기 위한 과정은 어렵고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로 인해, 교단들은 시간과 과정을 줄여 개신교 목회자를 양성하기 시작했고 그들을 서부지역으로 파송했다. 이 부분에서 일명 속성으로 안수받은 목회자들은 깊은 신학적 기초를 갖추지 못했기에 전통적인 방법으로 예배를 인도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이것이 주효했다. 예배의 본질은 건드리지 않고 그 이외의 것들은 목회자의 특성에 따라 예배형식이 실용적으로 변하기도 하며 자유롭게 구성되었다. 이것이 변경예배 어원이 되었다. 많은 변경교회들은 전문적인 성직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훌륭하게 사명을 감당했다. 침례교회는 지역의

⁸³ Ibid., 295.

농부 설교자들에게 의존하기도 했고 심지어 감리교회는 평신도 설교자들에게 크게 의지했었다.

대각성 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던 1801년 켄터키 주의 케인능선(Cane Ridge)에서 대형 야영집회가 열렸다. 이 야영집회는 변경예배의 중요한 예로 일컬어진다. 케인능선은 사람들이 쉽게 올 수 없는 장소였지만 10,000~25,000명이 참석하는 집회였다. 이 야영집회는 선교와 예배를 위한 형태를 지니고 있었다.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새로운 음식을 먹기 위해, 단조로운 생활에 새로운 자극을 주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찾아오는 장소가 되었다. 결국, 이 집회는 집회에 참여했던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포함하여 인종에 상관없이 모든 미국인들을 화합시켰고 경건하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을 경건한 사람들로 변화시켰다. 또한 이 집회에서 가장 중요했던 마지막은 바로 공동체와 연합을 상징하는 성찬식과 회심자를 위한 세례식이었다. 집회 참석 전에 세상에 있던 사람은 이 집회에 참석한 후 교회라는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다.

이 변경예배에는 예배의 변화를 위한 일곱 가지 특징이 있었다. 다음의 특징들은 예배의 원초적인 의미를 더 강화시키는 아주 긍정적인 요소들이다.

첫째, 예배의 설계이다. 변경예배는 회심자를 만들기 위해 설계된 예배라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것은 교회에 처음 오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예배에 새로운 방법들을 과감하게 도입했다는 의미이다.

둘째, 능동적 변화이다. 변경예배는 이전에 금지되었던 많은 전통들이 완화되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찬송과 기도를 하며 손뼉을 치고, 손을 높이 드는 행동을 포함한다. 성도들은 예배 시간에 “아멘” 이라고 외치는 등 자신의 뜨거운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예배 지도자들은 의도적으로 감정을 폭발시키기도

했고 사람들도 예배를 통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했다. 변경예배를 통해 예배가 성도들로 하여금 완전히 능동적인 참여를 이루게 되었다.

셋째, 주일학교의 발전이다. 변경예배 초기에, 사람들은 어린이들의 회심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어린이들은 나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회심하기에는 아직 충분한 나이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때, 부셀은 기독교 양육에 있어서 어린이들의 중요성을 간과한다는 것은 큰 잘못이라 지적했다.⁸⁴ 점차 어린아이들과 주일학교 교육에 관심과 노력이 투입되기 시작했고 주일학교 교육은 성경을 중심으로 성경읽기나 말씀 암송 등으로 이루어졌다.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주일학교의 관심과 교육은 아이들로 하여금 많은 삶의 변화들을 불러왔다.

넷째, 사회적 변화이다. 변경예배를 통해 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회심을 경험했다. 그리고 그러한 회심자들은 주일학교, 노예제도폐지, 금주, 여성의 권리, 감옥 개혁, 가정전도와 외국선교와 같은 사회 개혁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⁸⁵ 이를 통해, 변경예배에는 예배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서 경건함에 대한 실천의 노력이 있었음을 알려준다. 이러한 사람들의 회심은 예배에서의 경건함 뿐만 아니라 사회적 변화를 일으키는 선한 영향력으로 연결되었다.

회심자들의 이런 경건함은 결국 사회의 변화를 일으키는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찬송의 변화이다. 변경예배를 겪으면서 개신교 교회에 악기의 변화가 나타났다. 예배에 파이프 오르간이 등장했고 이를 통해 풍성한 성가대가 형성될 수

⁸⁴ Ibid., 308.

⁸⁵ Ibid., 309.

있었다. 교회들은 점차 음향을 고려한 기능적인 배치를 고민했고, 그것이 예배 공간에 이루어짐으로 성가대의 위치 또한 음악회 무대와 동일한 배치를 이루게 되었다. 찬송 역시 새로운 신자들을 배려하기 위해 새신자가 따라 부르기 쉽게 변했다. 변경예배 이전에는 찬송이 장엄하고 엄숙했다면 이제는 두 손 들고 마음과 열정을 표현하고, 손뼉치며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다. 이 때 많은 찬송가들이 나왔다. 회심자들은 “A Wonderful! Joy and salvation has come to my soul.” 과 같은 찬송을 부르며 자신의 구원을 즐기게 되었다. 이 때 나온 찬송가 중에 “내 기도하는 그 시간(Sweet Hour of Prayer)” ,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Blessed Assurance, Jesus Is Mine)” 등이 있다.⁸⁶ 이런 표현의 찬송들은 대부분 성경적이었고, 그런 성경적인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기대감이 생겨났다. 찬송에 힘이 있음을 변경예배 시대를 통해 알게 된 순간이다. 따라서 변경예배를 통해 변화된 찬송은 회심자들이 성경에까지 이르게 하는 경건의 훌륭한 방법이었다.

여섯째, 시간의 변화이다. 변경예배에서 시간의 구성은 굉장히 실용주의적으로 이루어졌다. 주일(일요일)에는 주일 오전 예배가 메인이었고 주일 저녁 예배는 오전보다 덜 형식적이었다. 주간에 이루어지는 기도회에는 평신도들이 기도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 또한, 성탄절과 부활절은 기본이고, 다른 전통적인 절기와 축제의 날에도 행사처럼 예배가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Memorial Day, 어머니 날, 어린이 날, Rally Day, World Communion Sunday, Loyalty Sunday 등이 있다. 또한, 여러 일 동안 이루어지는 부흥회가 생겼고, 따뜻한 날씨에 갖는 homecoming service가 생겼다. 이 homecoming service는 야외에서 기념 예배를 드리고 저녁

⁸⁶ Ibid., 310.

식사를 나누는 교제의 예배였다. 이처럼 시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잘 참여할 수 있고, 능동적인 참여를 일으키도록 예배가 변경되었다.

변경예배의 결과 2세기에 걸친 변화의 시간동안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한 마디로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변경예배는 세속적인 말로 표현하자면, 많은 비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가장 많은 사람들을 모았고 번창했다. 또 많은 회심자들이 생겼다. 실용주의적 예배 접근은 그 자체에 효력이 있어 지금까지도 유지되어 지속적인 변화를 일으켰다. 200년 동안 계속해서 변화된 전통은 또 다른 변화를 이루었다. 예를 들어, 첫째, 삶의 환경이 부유하고 질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일수록 시간이 흐르면서 차별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둘째, 변경의 초기에는 목재교회건물이 등장했다. 그 후, 경제가 좋아짐으로 인해 벽돌로 지은 교회와 석재 건물로 된 교회도 등장했다. 변경예배에서 등장한 교회의 건물은 교인들의 용도에 맞추어진 독특하고도 독창적인 건물이었다. 현대시대에는 교회에 농구코트, 카페테리아, 콘서트홀 같은 예배실이 등장하였다. 특히, 현대의 변경예배에 있어서 방송, 텔레비전, 인터넷, 온라인을 활용한 복음전도는 주목할 만한 등장이다. 변경예배 초기에는 교회가 아니라 야영집회, 운동장과 같은 비교회적 환경들이었고, 현대에는 방송, 텔레비전, 인터넷이 동일한 일을 하고 있다. 현대의 교회는 이러한 장비들을 도구로 삼아 비교도인들의 전도를 위해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변경예배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인물은 찰스 G 피니 Charles G. Finney (1792-1875)이다. 여기서는 찰스 피니라 부르겠다. 미국 역사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예배 개혁가로 평가받는 찰스 피니는 변경예배스타일을 적극 도입하면서 기존과는 다른 혁신적인 전도방법을 시도함으로 변경예배의 효과를 높였던 인물이다. 그가 나에게 유독 더 감명이 있는 이유는 그는 나와 나의 가족이

살았던 업스테이트 뉴욕에 살았고 나의 가족이 거주하던 집에서 15분 거리에 위치한 트로이에서 큰 부흥을 일궈낸 인물이기 때문이다. 찰스 피니는 예배에 새로운 방법들을 채용함에 있어서 분명한 이론적 근거를 가졌다. 그는 그의 강의에서 “하나님께서서는 예배에 사용해야 할 특별한 방법들을 정하지 않으셨다” 고 주장했다.⁸⁷ 사도들의 유일한 위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기능들을 사용하라! 너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행하라! 이를 행하라!” 였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그의 설교를 통해 “부흥이란, 적절한 수단들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용주의에 기초한 예배혁명을 주장했다는데, 그 이유는 이전의 전통들이 새로운 사람들을 전도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새로운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변화의 시도가 효과가 있으면 계속 시도하고 반대로 효과가 없다면 미련없이 버리고 다시 새로운 방법으로 변화를 위한 도전에 계속하라고 주장했다.

나는 건강한 예배를 말하면서, 이 변경예배가 확실히 100% 옳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변경예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더 쉽게 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오늘날 인터넷, 방송, 텔레비전의 활용은 분명히 비교도인들에게 파고드는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지금도 분명히 날마다 새롭게 개발되고 업그레이드되는 전자 기술의 도움을 받아 성도들을 섬기며 예배를 계속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 변경예배들을 통해 알게 되었듯이, 우리가 예배를 위해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방법들을 분별하고 올바르게 활용한다면, 교회는 예배를 더욱 풍성하게 할 것이다. 시대가 변하며 교회도 변화하는 것은 당연하다. 오히려 교회는 세상의 변화보다 한 발 더 빠르게

⁸⁷ Ibid., 303.

변화를 선도해야 한다. 이 변화 가운데서 절대 변하지 않아야 할 복음을 제외하고, 예배를 무너뜨리는 변화를 제외하고, 교회가 세상을 선도하기 위해 예배 공동체가 성경으로 무장하여 온라인과 같은 자원들을 적극적이고 지혜롭게 이용함으로 세상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

현대 교회의 문제점은 그 자원을 도구로서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도구가 자원이 되어버린 주객전도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변경예배를 통해 교회의 예배는 많은 것들이 실용적이고 효율적으로 변화되었다. 그러한 변화 속에서 교회는 중요한 것들, 예를 들면 ‘세례’와 같은 성례를 놓치지 않았다. 또한 많은 변화들은 보조수단들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공동체의 예배 참여를 독려했고 이는 자원들이 오로지 예배 자체에 의미를 더 부각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 현대교회는 이러한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고 옳은 방향을 찾아야 한다.

유대인들이 현 시대에 영향력 있는 공동체가 된 이유는 무엇인가? 공동체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유대인 커뮤니티 안에서 서로의 어려움을 채워주고 일으켜주고 세워주는데 탁월한 공동체이다. 초대교회를 생각해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하늘 승천하시면서 교회가 세워졌다. 우리는 그것을 초대교회라 말한다. 역시나 교회의 본 의미대로 그리고 예배의 본래의 의미대로 초대교회 시대의 예배는 함께 만나는 공동체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했다. 그 한 예가 성령의 불이 임했던 마가 다락방 공동체이다. 초대교회의 예배는 엄청난 축제였다. 기쁨이 넘치고 감사와 회복이 넘쳤던 예배 공동체 모임이었다. 또한 서로 준비해 온 음식을 나누었고 성찬과 세례, 기도, 설교가 이루어졌다.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은 성경을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도자를 통한 설교시간을 통해 하나님 말씀의 성경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 나오기를 힘썼다. 하나님의 말씀인 영의 양식을 받은 후 성도들은 성령의 임재를 소망하며

성찬식을 거행했다. 참으로 초대교회는 공동체적인 예배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지켰던 교회였다. 이런 초대교회 때 엄청난 부흥으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던 예배 공동체에는 변화가 필요했다. 도저히 한 공간에서 모두 모일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점차 새로운 교회가 생기고 또 다른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교회들이 교회의 원래 성격을 잃지 않도록 노력했다. 이것은 교회가 예배에 대한 건강하고 올바른 기초를 잘 지녔기 때문에 가능했다. 성도들은 서로 격려하고 일으켜주는 긍정적인 공동체를 이루었다. 이것이 교회가 온전한 예배를 변질시키지 않고 건강하게 부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오늘의 예배도 서로의 긍정적인 연합을 추구하는데 이르러야 한다.

B. 코이노니아적 친교의 회복

친교(교제 fellowship)는 성경 원어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κοινωνία)’ 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친교(코이노니아)에는 참여(participation), 나누어줌(impartation)의 포괄적 의미가 있다. 공동체가 함께 예배생활에 참여하며 서로 베푸는데 인식하지 않고 함께 소통하며 교제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배공동체의 모습이다.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예배공동체에는 ‘지혜’가 나타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을 위해 여리고성을 함락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모두 잠잠히 6일간을 매일 한 번 돌고 7일 째에는 7번 돌며 크게 함성을 지르니 성이 무너졌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가

‘코이노니아’로 원팀을 이루었다는 점이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 된 하나의 온전한 공동체였다. 이것을 세상 말로 팀워크라 한다. 분명히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의 방법에 불만을 갖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다. 왜 하나님은 여리고성 함락을 위해 그저 걷기만 시키시는가? 자기 손에 있는 무기를 믿고 당장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때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에 동의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기를 결정했다. 이것이 그들의 지혜이다. 지혜란, 자신이 가진 지식과 정보를 잘 활용하는 능력이다.⁸⁸ 하나님은 우리가 주어진 환경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결정하는지에 큰 관심을 갖고 계신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예배공동체를 통해서도 그러한 것을 기대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을 함락하는 상황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할 것을 결정했고 그렇게 행동으로 실천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혜’이다. 지혜로운 행동이 그들을 살렸고 가나안 입성을 가능하게 했다.

구약에서 지혜는 의로운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씀한다. 신약에서 지혜는 곧 ‘예수님’으로 나타난다. 내가 말씀 안에 살고, 우리의 공동체가 말씀 안에 거한다면 그것이 바로 코이노니아를 이루게 되고 우리의 모든 결정은 지혜에 따르게 되며 이는 곧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예배공동체라 말하는 교회가 분열되어 분리되는 경우를 보게 된다. 이런 이유에는, 사실 그들의 모습 속에 코이노니아가 없기 때문이다. 아담은 사탄과 일종의 교제를 나누게 되면서 선악과를 따먹었고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 이때 나타난 아담의 변화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불편해졌고, ‘탓’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하와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 여인 때문에

⁸⁸ 로널드 리처드슨, 『교회는 관계 시스템이다』 유재성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6), 149.

선악과를 먹었는데 저 여인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냐는 이 말 속에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과 하와에게 탓이 있다는 것이다. 코이노니아가 없는 공동체는 이렇게 자신의 행동에 따른 결과에 대해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림으로 분열이 일어난다. 그러나 진실된 교제가 있는 공동체는 정 반대의 모습을 보인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된 공동체는 생각이 다르더라도 서로 불편하지 않으며 감정이 상하지 않는다. 왜일까? 코이노니아가 있기 때문이다. 이 공동체는 서로 다른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틀리지 않고 그저 다른 것이라면 내가 먼저 품고 양보하며 서로 먼저 섬기고 먼저 손해보고 먼저 격려한다. 이렇게 모두가 함께 하는 공동체는 그렇게 하기로 한 그 지혜로 인해 교회에 유익이 되고 이는 곧 사회에 유익이 된다.

C. 예배공동체 회복의 실제적인 사례

독일에서는 이미 17세기부터 모두가 함께 모여 일하는 평신도 공동체운동이 존재했다. 이는 평신도운동인데, 이미 영적으로 잘 무장된 평신도들이 믿음이 약해 교회를 떠난 이들을 도와 다시 복음에 무장된 자가 되도록함에 목적을 둔다. 이 공동체 운동이 정말 현대교회를 위한 실제적인 예가 된다.⁸⁹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최근의 세 가지 공동체 운동들을 알아보자.

첫째, 그나다우어 연맹(Der Gnadauer Verband)이다. 독일의 대표적인 공동체 운동 모임으로 1888년 5월, 독일 그나다우에서 시작된 이 공동체 운동은 현재까지도 활발하게 공동체 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나다우어 연맹의 공동체운동은 두 가지

⁸⁹ 주도홍, 『개혁교회사』, 307.

목적을 제시함으로 함께 모였다. 첫째로 성경적이며 종교개혁의 확고한 입장에 서서 공동체적 개인의 경건을 고양하며 공동체적 봉사에 참여하고 전도에 힘쓴다. 또한, 교회의 직분과 조직에 바른 관계를 유지한다. 둘째로 교제와 기도를 통하여 신앙인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사명을 실천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여러 일들에 참여한다.⁹⁰

둘째, 떼제이다. 떼제는 1940년 로저(Roger Schutz)에 의해 떼제 공동체 운동으로 시작되었다. 이 운동은 교회를 중심으로 온 성도가 함께 이루는 교제를 통하여 신앙인에게 부여되는 사명들을 잘 감당하기 위한 개신교 운동으로 시작되었다. 떼제운동은 현재까지도 영향력을 미치는 공동체이다.⁹¹ 그러나 이 운동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주도홍 목사가 저술한 ‘개혁교회사’에 따르면, 떼제 공동체는 분명 개신교 입장에 있으면서 카톨릭의 수도원과 같은 성격을 띄기 때문에 떼제 공동체를 보는 시각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말한다.

셋째, 부르더호프이다. 대략 1920년경 독일 작은 마을에서 부르더호프 공동체가 시작되었다. 나는 이 공동체를 언급하고자 하는 이유는 부르더호프 공동체는 공동체 운동과 교회를 따로 분리하여 보지 않고 둘을 하나로 일치시키는 교회론적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부르더호프 공동체가 어떠한지를 알기위해서 이 공동체의 리더였던 하인리히 아놀드(Heinrich Arnold)를 다음의 글로 소개할 필요가 있다.

하인리히 자신도 열한 살 때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소명을 느꼈다. 청년이 된 그는 당시 부르더호프로 알려진 교회 공동체 회원으로 헌신하였다. 1938년, 그는 목자로 추대되었고 1962년부터 죽을 때까지 목사에서 내려와 부르더호프 운동의 장로로 이 공동체를 섬겼다. 그는

⁹⁰ Ibid., 314.

⁹¹ Ibid., 316.

자신에게 맡겨진 공동체 안팎의 건강을 열심히 보살피는 참다운 영적 지도자였다. 무엇보다 공동식사와 업무를 위한 회의, 예배에 있어서 일하는 것과 또 일상 생활을 함께 나누는 동등한 사람으로서 형제와 자매들을 섬겼다.⁹²

그는 이 공동체의 훌륭한 목자였지만 일반적인 목사는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는 신학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놀드의 이러한 참 목자다운 모습을 보면 일상생활을 나누는 생활공동체는 공동체의 영혼들을 따뜻하게 돌보는 아놀드 덕분에 이루어질 수 있었음을 알게 된다.

⁹² Ibid., 316.

제 VI 장

결 론

해마다 전염병이 휩쓸면서 예배는 조금씩 흔들렸다. 특히 코로나 전염병 시대를 통과하면서 우리는 ‘뉴노멀’ 시대에 접어들었다. ‘뉴노멀’은 어제는 일상이 아니었던 현상이 오늘에는 흔한 현상이 되어 가는 것을 뜻한다. 과거에 사람들은 말을 타고 다녔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흔한 일상으로 변한 것이 그 예가 된다. 즉, 완전히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음을 표현하는 단어가 ‘뉴노멀’이다.⁹³ 그러나 ‘뉴노멀’이라는 단어가 어제의 비도덕이 오늘 도덕이 될 수 있다는 타협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어제는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렸지만, 오늘은 그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뉴노멀을 타협의 도구로 삼는 자세이다.

마틴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며 카톨릭 사제들의 면죄부설교를 비판했던 때를 현대교회는 귀 기울여야 한다. 그 때의 면죄부설교는 현대에 또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종교개혁시대에 면죄부 설교로 인해 정말 들려지고 선포되어야 할 복음의 말씀, 생명의 강물인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다. 루터의 표현에 따르면 로마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병어리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⁹⁴ 그렇다면 현대교회의 면죄부는 무엇인가? 잘못된 예배관과 그에 따른 영적으로

⁹³ 최성은, 『뉴노멀 시대의 그리스도인』 (서울: 생명의말씀사, 2021), 10.

⁹⁴ 주도홍, 『개혁교회사』, 117.

건강하지 않은 목회자의 선포가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의 연구에 따라 예배에 대한 올바른 진리를 회복해야 한다. 성도들을 움직이는 힘은 면죄부가 아니다. 오로지 우리가 올바른 예배를 올려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대신 해주시는 그 역사가 바로 우리의 힘이다. 잘못된 지식을 소유한 목회자의 인도는 양들로 하여금 잘못된 산으로 가게 하는 꼴이다. 시편에서 다윗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과 ‘지식과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한다.⁹⁵ 주님을 올바르게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성도의 실력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지 않고 진리대로 아는 지식이 함께 있어야 현대판 면죄부가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뿐 아니라 모든 교회 공동체의 리더는 계속해서 공부하고 연구하여 새로운 지식을 얻고 깨달음을 얻는데 정진해야 한다.⁹⁶ 목회자의 설교가 듣기 좋았다고 귀를 간지럽히는 정도로 끝나면 그것은 목회자 역시 정진함이 부족했던 터이다. 목회자의 가르침이나 설교는 반드시 내 삶뿐 아니라 성도의 삶에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옛 모습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것, 예전의 나는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이 가능한 이유는 말씀이 살아 있고 말씀에는 힘이 있기 때문이며 그것이 진정 시편이 말씀하는 새로운 믿음과 지식을 얻는 길이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19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한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힘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변화를 일으키고 다시 일으키는 회복의 역사를 믿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올바른 예배 지식과 그 예배를 통한 올바른 믿음을 소유한다면 삼각형의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할

⁹⁵ 시편 78:72.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믿음)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지식과 실력)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⁹⁶ 김남중, 오강남, 최승목, 『코로나 이후 예배 설교 교회 미래 리포트』(부천: 워십리더, 2021), 55.

수 있을 것이다.



교회의 근간은 예배이다. 그것도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이다. 요엘 1장 14절⁹⁷에서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이 성전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 시대가 변하여도 우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변하지 말아야 할 진리가 무엇인지, 수용해야 할 변화의 수단은 무엇인지 보는 영적 눈이 열려야 한다.

교회사적으로 보아도 예배의 공동체운동은 그 기원을 예수님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 예수님 중심으로 모두가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유지하던 바로 그 모습이다. 예수님 중심으로 모였던 성도들은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천국이 이 곳에

⁹⁷ 요엘 1:14.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임하는 축복된 공동체임을 깨닫는 신앙생활을 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은 말씀의 홍수 시대를 지나고 있다. 말씀의 홍수시대는 이전부터 있던 말이지만 미디어가 발달할수록 그 홍수의 범위는 감히 종잡을 수 없을 만큼 거대하다. 말씀의 홍수를 보면서도 성도들은 말씀에 따른 열매가 맺히지 않고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지 않음으로 인해 영적으로 더 빈곤해진다. 이는 점점 더 다른 말씀을 찾게 되어 그 영혼이 미디어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한다. 영적 갈증을 성전 중심으로 해소하지 않고 음식점 메뉴 고르듯 미디어 속에서 해마다 보면 예배의 공동체성 회복은 더욱 어려워진다. 말씀에서 제시되는 아름다운 삶을 들으면서도 그 삶을 다른 사람의 것으로 생각하여 마치 말씀을 그림의 떡처럼 모셔둔다면 사람들은 더욱 허탄에 빠지게 된다. 그렇기에 이 문제의식을 현대교회들은 직시하여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고 아름다운 교회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 만약, 현대교회가 말씀대로만 살았다면 예배 회복이나 예배공동체 회복이라는 말은 사실 없었을 것이다.⁹⁸

우리는 지금까지 예배가 무엇인지를 다루며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예배에 대해 알아보았다. 예배 회복은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의 교제가 회복하는 것이 중요함을 살펴보았다. 교회는 세상 밖으로 부름받은 이들의 모임이다. 교회를 이룬 공동체는 주님의 한 몸으로서 교회의 예배를 함께 구성하고 하나님의 일을 같이 완수해가며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가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교회의 모습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뉴노멀시대에 교회에서 잃어버린 공동체성에 대한 회복에 대한 방향성을 찾았다. 많은 교회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설교라고 말한다. 그러나 설교가

⁹⁸ 주도홍, 『개혁교회사』, 306.

가장 중요한 예배 요소라면 꼭 모여서 예배드릴 필요는 없다.⁹⁹ 집에서 온라인으로 설교를 들을 수 있지 않은가. 예배에 대한 교회의 무지는 성도들로 하여금 설교 듣는 것이 예배의 전부라는 착각을 일으켰다. 이로 인해, 많은 성도들은 자신의 교회 이외의 다른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찾아 들으며 본 교회 목사님과 비교를 하게 되고 그렇게 교회 공동체가 더욱 해체되어 가는 모습도 보였다. 때로는 주일 오전 집에서 컴퓨터 앞에 편히 앉아 이 교회, 저 교회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찾아 듣고 설교가 끝나면 컴퓨터를 끄고 예배에 참석했다고 한다. 비단 설교뿐만이 아니다. 찬양과 기도도 집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현금도 휴대폰 뱅킹앱으로 드릴 수 있는 시대가 아닌가? 이 시점에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식탁공동체로 불러 모아 떡과 잔을 나누셨음을 기억해야 한다. 성찬과 세례에는 예배의 정신이 깃들어 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통해 말씀하고자 하신 것은, 성찬은 거룩한 공동체 모임의 시간이라는 것이다. 절대로 온라인으로 할 수 없는 시간, 이 시간만큼은 현장에서 모두 함께 있어야 가능하다.

세례도 마찬가지이다. 그동안 많은 교회는 예배의 다섯 가지 요소인 ‘기도, 설교, 찬송, 성찬, 세례’에서 설교를 통해서만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착각했지만, 이제는 이 모든 예배 요소를 통해 은혜를 받아야 온전한 예배공동체를 이룰 수 있음을 깨닫는다. 예배의 모든 요소는 모두 함께 모임으로 완성된다.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님 임하시고 성령의 기름부음이 나타났다. 초대교회 예배에는 오늘날의 ‘광고 및 친교시간’이 오늘의 예배와 비교될 정도로 비중 있는 시간이었다. 서로 함께 소통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중요했다는 의미이다.

현 시대의 진정한 리더십은 소통에서 나온다. 소통은 서로가 상호교제하며

⁹⁹ 이성호, 『예배를 알면 교회가 보인다』, 139.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세상도 하나 되는 공동체가 중요함을 말하는데, 예배자들은 이것의 시작이 예배에서부터 나왔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런 면에서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성도들은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의 본연의 뜻을 나누고 서로 다짐하는 것이다. 마틴 루터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것은 카톨릭이 흔들릴 정도로 카톨릭을 매우 걱정하게 만들었다. 존 웨슬리는 기도했을 때, 세계는 나의 교구가 된 것처럼 느껴졌다. 윌필드 역시 기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찾고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조지 물러 역시 기도했을 때, 집과 부모가 없는 수천 명의 아이들이 돌봄과 양육을 받았다. 이들 모두는 공동체의 중요함, 공동체의 변화, 공동체의 회복의 중요함을 말한 것이다.

2017년 한국의 한 언론사에 따르면, 한국교회가 사회를 향한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고 발표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69.8%의 응답자가 한국교회의 사회적 영향력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교회가 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은 34.7%에 불과했다. 언론인들은 개신교 이미지 형성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인냐는 질문에 ‘교회 지도자들의 언행’ (48.9%)을 꼽았고 한국교회에 대해 더 알고 싶은 점은 ‘개혁/자정의 노력’ (50.2%)이었으며 사회와 교회의 소통을 위한 창구가 필요하다(37.3%)는 의견도 많았다.¹⁰⁰

교회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다. 교회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중에도 교회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음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교회가 사회적 영향력이 있고 사회도 교회의 영향력을 기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교회를 그만큼 신뢰하지 못한다는 점은 교회의 방향이

¹⁰⁰ 크리스찬데일리, “기독일보”,

<http://www.christiandaily.co.kr/views/newsletter/pdf/170109.pdf> [2024. 12. 30 최종접속].

잘못되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회의 개혁은 교회의 방향이 잘못되었음을 감지하기 시작한 현상이고, 이는 곧 예배공동체의 균열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교회의 예배공동체가 경건함을 잃었고 교회 지도자들은 예배의 구성요소인 설교에 있어서 그들의 삶이 설교가 되려는 노력 없이 복음을 전했다기 때문이다.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사회는 교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지나간 종교개혁의 선구자들과 종교개혁자들, 그리고 예배회복 운동을 일으킨 이들이 세상을 향한 교회의 빛이 희미해져 갔을 때 용기를 내어 그 빛을 다시 밝혔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들을 통해 예배공동체의 회복과 부흥이 일어났고 큰 부흥의 파도가 있었음을 역시 기억해야 한다.

현대시대는 많은 정보와 오락, 발전이 빠른 문명, 인터넷 시대 등 경건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넘쳐난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의 경건을 무너뜨린다. 이 경건의 부재는 교회 안에서의 복음적이고 온전한 예배 공동체를 해체시킨다. 현대 교회와 교회를 이루는 거룩한 예배 공동체는 “어떻게 복음대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묻는 시대에, 다시 한번 경건의 회복으로 온전한 예배 공동체를 이룰 것을 필요로 하고 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삶의 태도가 기도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곧 기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 말은 우리의 삶이 곧 기도와 일치하는 삶을 말한다. 예배 공동체가 그렇게 회복되어야 한다. 온전한 예배공동체를 이루는 교회는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아야 한다. 교회마다 건강한 예배공동체의 회복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의 시끄러운 소리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는 흔들리지 않고 잘못되지 않도록 분별의 영을 얻게 될 것이다.

코로나 시대에 미국 학교들은 대면수업에서 모두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대한 부작용은 그 즉시 나타났다. 학생들의 수업성취도와 사회성은 바닥을 치게 되었다. 코비드바이러스가 잠잠해져가던 2022년 말 나의 가족이 뉴욕주에 살던 시기에 아들의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은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팬데믹 때는 온라인 수업으로 아이들이 모두 너무나 많은 문제들을 가졌었어요. 하지만 다시 함께 만나 대면수업을 하게 되면서 많은 부분이 회복되었네요.” 아이들은 함께 하지 못함으로 인해 사회성이 없어졌고 대인기피증에 시달리며 스크린 모니터라는 작은 사각형이 그들의 전부인 세상이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학교에서 직접 수업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시대가 지나면서 변하는 것들이 많지만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학교 교육과 교회 예배이다. 앉아서 대면 수업을 듣는 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온라인 숙제나 온라인 수업이 없는가? 아니다. 온라인은 아주 훌륭한 보조 수단이다. 그러나 우리는 팬데믹 시대에 보조수단이 메인이 되었을 때의 폐해를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다. 본질과 비본질을 분별하고, 메인과 보조수단을 구분할 줄 안다면 건강한 예배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

그 동안 많은 교회들이 침몰하는 배에 성도들이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했다. 교회의 예배에 대한 무지로 성도들의 영이 가라앉고 있는데 교회는 손을 놓고 있었다. 그저 세상이 교회에 손가락질하는 것을 피하고 싶었고, 지역사회를 위해 교회 문을 닫는다는 핑계로 성도들의 영적 호흡을 멈추게 하였다. 교회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몸은 함께 모일 때 힘이 있음을 설명하지 못했고, 왜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를 멈추면 안 되는 것인지 이해시키지 못했다. 온라인 예배가 왜 메인이 될 수 없고 그저 도구일 수밖에 없는지 그 위험성을 설명하지 못했다. 도구이자 보조수단이었던 온라인이 진짜 예배가 되어버리니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로 모이는 것이 불편해졌고 개인주의가 강해졌기에 다시 원래의 예배 공동체로 회복하기란 쉽지 않았다. 교회가 올바른 예배에 대한 기초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랬기 때문에 한 기독교관련 언론은 ‘한국교회는 예배 신학에 대한 이해가 빈약하다’는 기사를 내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은 이렇게 말씀한다. “(22)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 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며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더라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실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것이다. 오히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말씀하시기까지 한다. 이는 마치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가인은 아벨이 그러했던 것과는 달리 예배 드리는 자세와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창세기 4장 4-5절은 말씀한다.¹⁰¹ 현대교회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자세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예배가 무엇인지 그 말씀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이제부터 현대 시대의 모든 교회가 예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춘다면, 또 다른 예기치 못한 팬데믹 상황에서도 교회는 다시 생명되는 예배를

¹⁰¹ 창세기 4:3-5. (3)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포기하지 않게 되고, 예배공동체가 해체되는 일을 반복하지 않으며 지혜롭고
 슬기롭게 공동체를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 성도는 모여야 한다. 교회는 거룩한
 모임의 공동체이다. 예배는 사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모임이 아니라 도리어 교회의
 본질을 회복시키는 힘이 있어 그 힘이 사회에 빛을 비추고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온전하고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새겨 놓으신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회복되어야 한다. 예배는 하나님과 나, 나와 성도
 간의 상호교제가 일어나는 공동체적 소통임을 알게 되었다. ‘파도를 타는
 교회(Rising Tides)’의 저자 닐 콜(Neil Cole)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분명히 공동체 안에서 배울 때 배움이 더 깊어진다. 왜 그럴까?
 이유는 우리가 공동체를 통해 나만의 생각을 넘어 서로의 생각을 더
 분명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개인으로서 배운 것들을 다 더한다 할지라도
 함께 배운 것들을 결코 넘어설 수 없다. 함께 배우는 것들은 단순히
 개별적으로 배운 것들을 합한 것 이상의 힘을 갖는다.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함께 씨름하면서 만들어지는 시너지 효과는 과소평가 될 수
 없고, 어떤 사람도 혼자서는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없다. 다양한 관점,
 다양한 성격 및 독특한 관점들은 사고 과정을 더 풍성케 하고 더 의미
 있는 삶으로 이끌어준다. 공동체 안에서 더 강력한 아이디어가
 상대적으로 더 빈약한 아이디어를 도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대체하기도
 한다. 이런 현상은 결국 배운 것에 대하여 더 큰 책임을 갖게 하고,
 배운 교훈들을 실행에 옮길 환경도 만들어준다.¹⁰²

이러한 공동체 정신이야 말로 성경이 말씀하는 삼겹줄¹⁰³의 힘이다. 전도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한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¹⁰² 닐 콜, 『파도를 타는 교회』, 208.

¹⁰³ 전도서 4:12.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러한 공동체 정신이 예배에 담겨 있어야 한다. 예배의 각 요소마다 여러 모양으로 나타난 예배공동체의 상호 소통은 신앙 공동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그러나 소통이 잘못될 경우 많은 오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교회는 이러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 내에서는 상호 간에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주며, 부족한 부분을 사랑과 기쁨으로 돌보아 주는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람의 마음으로 하면 불가능하지만 이러한 교제는 예배를 통해 시작되고 완성된다. 이메일, 문자 메시지, 그리고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를 통한 소통에서는 오해가 발생할 여지가 많지만 직접 얼굴을 맞대고 소통할 때는 이러한 오해가 줄어든다. 이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공동체와 함께 드리는 예배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마련하신 놀라운 섭리로 볼 수 있다.

교회의 지금 모습은 오늘까지 우리가 결과를 얻어내도록 디자인된 관행들이다. 만약 우리가 온전한 공동체성 회복의 예배를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확장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옛 행태를 과감히 내려놓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데 있어 필요한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여야 한다.¹⁰⁴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의 흐름 앞에서 교회는 그 변화의 흐름보다 앞서야 한다. 그러기 위한 방법은 한 가지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신앙이 아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과감히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신앙 정신이다. 그렇게 된다면,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변화할지라도 결코 변치 않으시는 예수님의 힘이 교회의 힘, 즉 우리의 힘이 되어 모든 변화의 수단들을 분별하여 교회를 아름답게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이다.

¹⁰⁴ 닐 쿨, 『파도를 타는 교회』, 163.

따라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예배를 통해 신앙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유지하는 주역이 되어야 한다. 교회가 예배의 본질과 이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이해할 수 있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고, 또 다른 예배의 위기 상황에서도 성경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이 모든 교회에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한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쉬운말성경)

어떤 사람들의 잘못된 습관처럼,

우리는 함께 모이는 일을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말고, 도리어 서로를 격려하고 권면하는 가운데 주의 재림의 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이도록 합시다.

참고문헌

- A.W.토저/이용복 옮김. 『이것이 예배이다』. 서울: 규장, 2006.
- E.M.바운즈/전광규 옮김. 『설교의 능력은 기도에 있다』. 서울: 하나, 1998.
- International Bible Society. *New International Version Finding God for Young Adults*. Michigan: Zondervan, 2008.
- Lucy Lind Hogan. *Graceful Speech*. Kentucky: WJK, 2006.
- Lovett H. Weems, Jr. *Leadership in the Wesleyan*. Tennessee: Abingdon, 1999.
- 네이션 D 미첼/안선희 옮김. 『예배, 신비를 만나다』. 서울: 바이박스, 2014.
- 네이션 D 미첼/안선희 옮김. 『예배, 사회과학을 만나다』.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8.
- 닐 콜/임재승 옮김. 『과도를 타는 교회』. 서울: 도시사역연구소, 2020.
- 데이비드 플랫/최종훈 옮김. 『래디컬』. 서울: 두란노, 2013.
- 로널드 리처드슨/유재성 옮김. 『교회는 관계 시스템이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6.
- 롤란드 베인튼/홍치모 옮김. 『16세기 종교개혁』. 광주: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0.
- 리처드 백스터/최지남 옮김. 『참 목자상』.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8.
- 마이클 그린/김경진 옮김. 『초대교회의 전도』.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8.
- 엘머 타운즈, 에드 스태저, 워렌 버드/이대숙 옮김. 『뉴 패러다임 시대의 11가지
교회 모델』. 서울: 요단, 2011.
- 오레 보르겐/조종남 옮김. 『웨슬리와 성례전』. 서울: 선교햇불, 2019.
- 웨이슈잉/이지은 옮김. 『청소년을 위한 하버드 새벽 4시 반』. 서울:

- 라이스메이커, 2015.
- 유스토 L 곤잘레스/서영일 옮김. 『초대교회사』. 서울: 은성, 1995.
- 유스토 L 곤잘레스/서영일 옮김. 『중세교회사』. 서울: 은성, 1995.
- 유스토 L 곤잘레스/서영일 옮김. 『종교개혁사』. 서울: 은성, 1995.
- 유스토 L 곤잘레스/서영일 옮김. 『현대교회사』. 서울: 은성, 1995.
- 제임스 알 브라이스/임은묵 옮김. 『응답받는 기도 매뉴얼』. 고양: 예찬사, 2023.
- 제임스 F 화이트/김석한 옮김. 『개신교예배』.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9.
- 제임스 F 화이트/김운용 옮김. 『하나님의 자기 주심의 선물 성례전』. 서울: 예배와설교아카데미, 2018.
- 칼 하인츠 츠어 쾰렌/정병식, 홍치운 옮김. 『종교개혁과 반종교개혁』.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2.
- 케네스 콜린스/이세형 옮김. 『존 웨슬리 톺아보기』. 서울: 신앙과지성사, 2018.
- 테리 로/전가화 옮김. 『찬양과 경배의 능력』. 서울: 믿음의 집, 1988.
- 필립 제이콥 슈페너/모수환 옮김. 『경건한 열망』. 광주: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14.
- 가진수. 『모던위십』. 부천: 위십리더, 2022.
- 김남중, 오강남, 최승목. 『코로나 이후 예배 설교 미래 리포트』. 부천: 위십리더, 2021
- 김두현. 『교회 케리그마』. 광주: 21C목회연구소, 2013.
- 김동환. 『목사 웨슬리에게 설교를 묻다』. 서울: KMC, 2015.
- 김영봉. 『설교자의 일주일』. 서울: 복있는사람, 2021.
- 김영선. 『사진으로 따라가는 존 웨슬리』. 서울: KMC, 2010.
- 김영선. 『존 웨슬리와 감리교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 김유진. 『어웨이크』. 서울: 북폴리오, 2022.
- 김재수. 『12사도를 통해 주시는 주님의 가르침 디다케』. 논산: 대장간, 2019.
- 김주찬. 『소아시아의 7대교회』. 서울: 옥합, 2002.
- 김진두. 『존 웨슬리의 생애』. 서울: KMC, 2012.
- 백용현. 『기도학교』. 서울: 두란노, 2019.
- 서길원. 『Restart의 원리로 미래를 여는 교회』.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18.
- 소강석, 이재훈. 『메디컬처치』. 서울: 콤파출판사, 2021.
- 심창섭, 채천석. 『원자료 중심의 근현대 교회사』. 서울: 솔로몬, 1999.
- 심창섭, 박상봉. 『교회사 가이드』. 서울: 아가페문화사, 1994.
- 오정현. 『새벽사람 전성기』. 서울: 규장, 2003.
- 이광복. 『설교목회』. 서울: 흰돌, 201
- 이동원.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 서울: 두란노, 2008.
- 장학일. 『달라져야 한다』. 서울: 밴드목회연구원, 2001.
- 장홍길, 홍인중. 『급변하는 과학기술 사회와 교회』. 서울: 한지터, 2017.
- 장홍길, 홍인중. 『새 시대, 새 교회』. 서울: 한지터, 2018.
- 전병욱. 『하나님을 감동시킨 일천번제 예배자』. 서울: 규장, 2005.
- 전병욱. 『새벽 예배자』. 서울: 규장, 2006.
- 주도홍. 『개혁교회사』. 서울: 솔로몬, 1998.
- 최성은. 『뉴노멀시대의 그리스도인』. 서울: 생명의말씀사, 2021.
- 최승목. 『성막, 하나님을 꿈꾸다』. 부천: 위십리더, 2022.
- 최형걸. 『초대교회사』. 서울: 이레서원, 1999.
- 최형걸. 『중세교회사』. 서울: 이레서원, 2000.
- 하근수. 『왜 새벽기도인가?』. 안산: 토브북스, 2020.

국민일보, “시사.”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0358465> [2025. 1. 3

최종접속].

크리스찬데일리, “기독일보.”

<http://www.christiandaily.co.kr/views/newsletter/pdf/170109.pdf> [2024. 12.

30 최종접속].

한국기독공보, “속건제.” <https://pckworld.com/article.php?aid=8212391578>

[2024. 12. 28 최종접속].

브런치스토리, “하버드 대학 글쓰기 OREO.” <https://brunch.co.kr/@withly/144>

[2024. 12. 28 최종접속].

V I T A

PERSONAL DATA

Full Name: Hyunkoo Choi

Place and Date of Birth: Suwon, South Korea, February 26, 1990

Parent`s Names: Jaechoon Choi and Heyran Lee

EDUCATIONAL INSTITUTIONS

<u>School (Name and Address)</u>	<u>Degree</u>	<u>Date</u>
Suwon High School 666-10, Jeongjo-ro, Paldal-gu, Suwon-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Feb 15, 2008
Hyupsung University 72, Choerubaek-ro, Bongdam-eup, Hwaseong-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Th. B	Feb 14, 2014
Hyupsu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Theology 72, Choerubaek-ro, Bongdam-eup, Hwaseong-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Th. M	Feb 12, 2016
Wesley Theological Seminary 4500 Massachusetts Ave NW, Washington, DC 20016	M.A.	Dec 17, 2021
Drew University Theological School 36, Madison Ave, Madison, NJ 07940	D.Min	May 17, 2025

I understand that the Drew University Library may make this document available to scholars and other Libraries.



Signature

Hyunkoo Choi

Jan. 12. 2025